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45호 【루계 제26219호】 주체107(2018)년 12월 11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단천발전소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단천발전소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단천발전소건설을 최단기간에 완공함에 대한 당의 전투지휘소를 만들고 평양제명기술개발소 실장 김강일은 공사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후방물자를 지원함으로써 돌격대원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고조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대외경제성 산하단위 부원 현철은 나라의 대동력기지를 일떠세우는데 적은 힘이나마 기여할 마음안고 맡은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단천전역에서 위훈을 떨쳐가는 건설자들의 생활에 뜨거운 혈육의 정을 기울였다.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여온 단천시인민위원회 산하단위 로동자 문성녀는 불타는 애국심과 공민적자각을 지니고 발전소건설장에 온 가족의 지성이 어린 물자들을 보내주는 훌륭한 소행을 발휘하였다.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는 시대의 벅찬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용진광산 차광수청년돌격대 로동자 리경일은 들끓는 전투장에서 충정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지원사업에도 앞장섰다.

김책시인민위원회 자재상사 로동자 리철도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빛나게 실현할 일념안고 많은 차부속품들을 해결해주어 조국의 만년재부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건설자들을 적극 고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정을 지니고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에 앞장서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 더욱 헌신해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인민망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동해지구의 수산사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고기배에서 금방 잡아온 물고기를 펴올리는 모습과 야외하륙장에 쏟아지는 물고기폭포를 보니 기분이 정말 좋다고 하시면서 이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어로공들과 종업원들을 몰가까이 부르시여 뜻깊은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와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틀어쥐고 적극 발전시켜나가면 인민들과 군인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앞으로도 황금해역사창조의 선구자들답게 조선로동당의 수산정책을 옹호관철하는데서 계속 앞장서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중국의 해외망, 인디아의 인터네트통신 보이스 오브 밀레니엄, 일본의 지지통신, NHK방송과 김일성김정일명칭 전국웰라루씨 조선인민의 친우협회, 뿔스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탐구를 위한 국제친선발기 인터네트홈페지들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갑피직장을 비롯한 생산현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제봉작업에서 콤퓨터화를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신발생산에서 형태의 다양성, 전고성보장에 중심을 두고 그 질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내밀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중국의 인민망, 미국의 UPI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환구망, 로씨야의 《RT》TV방송, 인터네트통신 쎄스찌.루, 인터네트신문 《로름》, 인터네트홈페지 《빠뜨리오띠 모스크바》, 인디아신문 《오우션 뉴스 포인트》와 로씨야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 백두산제스꼬조선친선협회, 제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은 우의 소식들을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위대한 김정일대원수각하회고감보자위원회가 1일에 결성되였다.

노로돔 시하모니국왕의 지시에 따라 롱 쌈을 왕궁담당부수상이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1일부터 20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주체혁명위업완성과 반제자주위업실현을 위한 길에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업적을 출판보도물들을 통하여 널리 소개선전하며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동지회고 세네갈위원회가 11월 27일에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세네갈독립로동당 총비서 쌈바 씨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12월 3일부터 17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독보회, 영화감상회를 비롯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가 11월 30일 앙골라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앙골라녀성조직 국제비서 아말리아 알렉싼드르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12월 5일부터 18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자랑찬 성과들을 련이어 달성하고있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동지회고 퀼리핀위원회가 11월 30일 마닐라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필리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 훨레르모 라싸로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령도자회고 리비아위원회가 2일에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리비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아흐마드 무함마드 알 쿨레이비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도서 및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김정일장군각하회고 만마위원회가 1일에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만마동종의학과학연구소 소장 런 룬이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회고모임을 비롯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각하회고 잠비아위원회가 3일에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잠비아 무날리남자중학교 교장이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회고모임,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인민망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동해지구의 수산사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고기배에서 금방 잡아온 물고기를 펴올리는 모습과 야외하륙장에 쏟아지는 물고기폭포를 보니 기분이 정말 좋다고 하시면서 이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어로공들과 종업원들을 몰가까이 부르시여 뜻깊은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와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틀어쥐고 적극 발전시켜나가면 인민들과 군인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앞으로도 황금해역사창조의 선구자들답게 조선로동당의 수산정책을 옹호관철하는데서 계속 앞장서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중국의 해외망, 인디아의 인터네트통신 보이스 오브 밀레니엄, 일본의 지지통신, NHK방송과 김일성김정일명칭 전국웰라루씨 조선인민의 친우협회, 뿔스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탐구를 위한 국제친선발기 인터네트홈페지들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갑피직장을 비롯한 생산현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제봉작업에서 콤퓨터화를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신발생산에서 형태의 다양성, 전고성보장에 중심을 두고 그 질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내밀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중국의 인민망, 미국의 UPI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환구망, 로씨야의 《RT》TV방송, 인터네트통신 쎄스찌.루, 인터네트신문 《로름》, 인터네트홈페지 《빠뜨리오띠 모스크바》, 인디아신문 《오우션 뉴스 포인트》와 로씨야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 백두산제스꼬조선친선협회, 제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은 우의 소식들을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쌓으신 특출한 업적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체스꼬, 에티오피아, 우간다, 타이에서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에 토론회, 회고모임, 강연회, 도서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주체사상탑》, 《일심단결로 승리떨쳐온 내 조국》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이며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 위원장인 백두산제스꼬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요제프 페르비스따는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통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쌓으신 특출한 업적으로 하여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그이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하시였으며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조선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조선이 오늘과 같이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존엄떨치고 조선인민이 자주적이며 값높은 삶을 누리고있는것은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동지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리라고 확신한다.

에티오피아 자주정치연구위원회 위원장 아브디 페디르는 회고모임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사회주의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시였으며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간다에서 진행된 강연회에서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인류사상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데 대해 격찬하였다.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 쏭치트 플랑은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는 한평생을 오로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다 바치시였다.

나는 여러차례 조선을 방문하는 과정에 그이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107(2018)년 국가표창수여식 진행

【평양 12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의 창업한 투쟁에서 로력적성과를 이룩한 과학자, 기술자, 교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일군들에 대한 국가표창이 있었다.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상을 높이 떨치며 공화국창건 70돐을 민족적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한 뜻깊은 올해에 우리 인민은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총공세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자랑찬 승리를 쟁취하였다.

주체107(2018)년 국가표창수여식이 1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양형섭동지와 올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근로자들과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평양시안의 교원, 연구사, 기술자, 3대혁명소조원, 로력혁신자들, 과학연구부문의 과학자들,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양형섭동지가 전달하였다.

김정일훈장이 통군철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낫) 및 국기훈장 제1급이 송만호동지, 박호철동지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이 강창수동지, 송은순동지에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이 림순희동지, 홍태식동지에게,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표창장이 정부찬동지, 홍광일동지, 박영철동지, 전용범동지, 박준일동지, 옥광일동지, 김원영동지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표창장이 현철진동지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이 조류경동지, 김혁동지, 김광철동지에게, 김정일청년영예상이 차명남동지에게 수여되였다.

이어 인민과학자칭호가 강응천동지에게, 인민교원칭호가 최정화동지, 리향동지에게, 공훈과학자칭호가 김철수동지, 윤명동지, 김혁동지, 엄키수동지, 정금천동지, 김홍원동지에게, 공훈기술자칭호가 김영남동지에게, 공훈설계가칭호가 홍창성동지, 윤용철동지에게, 공훈교원칭호가 유미란동지, 김현옥동지, 한동숙동지, 김영희동지, 지찬옥동지에게, 공훈의사칭호가 허봉철동지, 리경희동지에게, 공훈운재공칭호가 최일민동지에게, 공훈산림공칭호가 김력배동지에게, 공훈기관사칭호가 문광일동지에게, 공훈자동차운전사칭호가 최홍기동지, 허명금동지, 김용희동지에게, 공훈뜨락또르운전수칭호가 안영일동지에게, 공훈콤바인감독원칭호가 김동일동지에게 수여되였다.

김창근동지, 라영찬동지, 최성국동지, 리경근동지, 현태호동지, 리인철동지, 최성동지, 신광일동지, 박진길동지, 박영희동지, 염대선동지, 김덕수동지, 선영민동지, 최동일동지, 김주성동지, 최승우동지, 오금철동지, 윤승철동지, 장영철동지, 안호섭동지, 김철호동지, 석두흥동지, 백영철동지, 김영식동지, 리순호동지, 리학준동지, 김경호동지, 현정길동지, 리준철동지, 조상혁동지, 박훈동지, 최종학동지, 박세남동지, 리계봉동지, 리정화동지, 윤설경동지, 김한철동지, 김호길동지, 염금희동지, 리종수동지, 김만철동지, 조영주동지, 정영숙동지, 리동춘동지, 황문성동지, 윤봉주동지, 리학성동지, 김룡련동지, 김성철동지, 김영수동지가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받았다.

로력훈장, 국기훈장 제2급이 83명에게 수여되였다.

수여식에서는 올해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크게 기여한 대상들의 투쟁성과가 언급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응당해야 할 일을 한 자기들의 자그마한 성과를 값높이 내세워주시며 크나큰 사랑과 영광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당의 믿음과 기대를 손간도 잊지 않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창조대전의 앞장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수여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일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을 방문하고 귀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이 꾸바공화국,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메히꼬합중국에 대한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명예위병대 제1부대장의 영접보고를 받은 다음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 내각부총리 리룡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류명선동지, 외무성 부상 신홍철동지가 마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투목표를 수행한 기세로 희천정밀기계공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희천정밀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주체100(2011)년 10월 또다시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로동자, 기술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분전기제부속품생산에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당조직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들끓는 전투장들에 나간 일군들은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들이대면서 로동자, 기술자들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일군들이 투쟁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면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있다. 그리고 공정간 련계를 긴밀히 해주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고있다.

온 공장이 혁명열, 투쟁열, 경쟁열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통전기재부속품생산의 선행공정을 맡은 단조직장, 유색주물직장, 흑색주물직장, 소재준비직장에서 혁신적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다. 로동자들은 설비들에 대한 관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면서 80㎔뜨락또르와 5t급화물자동차 연료뽐프를 비롯한 여러가지 부속품생산에 필요한 소재들을 제때에 다음공정에 보내주고있다.

특히 유색주물직장 로동자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평양철도종합대학 연구사들과 지혜를 합쳐 합리적인 주조방법을 받아들여 제품의 실수률을 높이고있다.

연료뽐프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생산에서 계속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고있다. 그들은 기대들에 정통하고 새 기술을 받아들여 제품의 질을 높이고있다. 그리고 3대혁명소조원들과 합심하여 과학기술적으로 제기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연료뽐프부속품가공속도를 높이고있다. 이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기술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면서 다기대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통합생산조종실의 기술자들은 부속품의 질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있다.

유압기구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치렬한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그들은 설비를 는동자와 같이 다루면서 80㎔뜨락또르부속품생산에서 련일 실적을 올리고있다.

부속품조립을 맡은 로동자들은 가공된 부속품들에 대한 선별을 정확히 하고 조립속도를 부단히 높이고있다.

열처리직장을 비롯한 다른 직장, 작업반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부속품생산에서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고있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생산돌격전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김순홍

인민군대어로용사들의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를 받은

황금해의 새 력사여, 불멸의 그 업적 길이 전하라

지난 1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동해지구의 인민군대 수산사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은 지금도 온 나라를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우에 바다향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동해전역의 어장마다, 포구마다에서 당정책결사관철의 노을 역세게 저으며 물고기보물산을 높이높이 쌓아가는 어로공들의 미더운 모습이 보고싶으시여 파도세찬 바닷길을 달려 인민군대의 수산사업소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군대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선구자, 본보기로 내세우시고 온 나라에 수산혁명의 불길, 새로운 어로신화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는 오늘 또다시 조국의 바다에 장쾌한 광경을 펼쳐놓았다.

동해의 《단풍》은 붉게 탄다

우리는 지금 파도세찬 어장에서 양망작업이 한창인 조선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 고기배 《단풍 1-02》호의 갑판우에 서있다. 날씨조건이 나빠 많은 배들이 대피하여있지만 인민군대 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은 웬만한 해상경보같은것은 감쪽하지도 않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바람속도는 15~18m/s정도, 물결높이는 평균 3~4m, 이른새벽 포구를 떠나 세시간만에 어장에 도착한 때로부터 그물걷기는 벌써 두번째, 시간이 흐를수록 어창에 그득히 쌓이는 도루메기…

만산의 화려한 단풍은 가을계절에만 있지만 내 조국의 푸른 바다는 온정어린 《단풍》호고기배와 더불어 한겨울에도 물고기대풍을 알리는 《단풍》풍경을 노래하고있는것이다.

《단풍》, 그것은 고기배의 이름이기 전에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 간절한 소원의 대명사이고 조국의 바다에 사시절 풍요한 수확의 계절을 펼치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애국의 불씨인것이다.

하기에 우리 원수님께서는 지난 11월 사업소에 찾아오시였을 때 조선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가 황금해력사창조의 고향, 《단풍》호고기배들의 고향답게 전국의 제일 앞장에서 실적을 올리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그리도 만족해하신것이리라.

그날의 감동깊은 사연에 대해 격정에 넘쳐 들려주는 선장의 이야기는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인가.

잊을수 없는 현지지도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업소에 도착하시였을 때까지만 해도 지배인을 비롯한 사업소의 일군들은 겨울철집중어로전투를 지휘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업소에 오시였다는 꿈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너무도 조용히 찾아오신 그이께 어쩌리지듯 달려와 인기는 지배인을 반갑게 맞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고기도 물고기이지만 동무가 보고싶어 왔다고 하시며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순간 지배인은 애써 참고참던 격정을 억제 못하고 활짝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러한 지배인과 함께 전해와 또 다르게 변모된 사업소를 기쁨속에 돌아보시면서 8월25일수산사업소는 《단풍》호고기배들의 고향, 황금해력사창조의 고향이라고, 이 수산사업소는 나라의 수산부문이 다 주저앉았을 때 당에서 수산전선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투쟁의 불씨를 지펴준 사업소이라고, 바로 여기에서 《단풍》호고기배들이 첫 출항을 한 때로부터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새로운 대중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으며 황금해의 고향, 《바다 만풍가》의 고향으로 수산전선의 《일당백》의 고함과도 같이 세상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온 나라에 수산열풍이 세차게 일어 황금해의 새 력사가 창조되였다.

황금해력사의 첫페지에 아로새겨진 4 000여t의 물고기가 얼마나 소중하시였으면 우리 원수님께서 사업소를 찾으시였을 때 절인 물고기들이 쌓여있는 탕크의 나지막한 력에 스스럼없이 앉으시여 물고기를 배경으로 일군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고 어느해인가 오시였을 때에는 습기와 소금기가 배였던 그 자리가 잊혀지지 않으시여 또다시 앉아보시였겠는가.

그 눈물겹던 어제날의 절임탕크가 올해의 짧은 기간에 3 000t능력의 랭동저장고로 실리있게 개조되여 지난 11월 사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산사업소에 장비한 《단풍》호고기배들의 성능과 기술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물고기가공장과 랭동저장고, 종합생산지휘실을 비롯한 사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당의 방침관철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어제날 1 500t능력의 절임탕크를 짧은 기간안에 실리있게 개조하여 3 000t능력의 랭동저장고로 꾸린데 대하여서와 일급동능력을 세계적으로 높일데 대한 과업을 집행한 정형을 보고받으시고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저장고마다에 수천t의 물고기를 꽉 채워넣고있는데 대하여서도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조선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물고기잡이에서 새로운 봉화를 지펴올린 선구자답게 앞으로도 황금해력사창조의 항로를 줄기차게 이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며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담아싣고 《단풍》호고기배들은 오늘도 동해의 세찬 파도를 헤가른다.

한겨울의 세찬 파도우에 붉게 되는 동해의 《단풍》.

정녕 그것은 위대한 당의 온정속에 인민을 위해 펼쳐진 황금해의 새 모습인것이다.

우리의 바다에는 이렇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자욱과 더불어 사계절 인민사랑의 《단풍》이 더더욱 붉게 탄다.

최고사령부직속 수산사업소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찾으면 누구나 구내에 세워진 물고기내리공급략도앞에서 가슴젖어듦을 금치 못해한다. 사업소의 물고기내리공급단위들이 인민군대의 그 어떤 중요한 전투단위들이 아니라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인것이다.

푸른 물 출렁이는 동해포구에 우리 나라 수산사업소의 표준, 본보기단위로 일떠선 이 수산사업소는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1년 365일 신선한 물고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해주시려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친어버이사랑에 의하여 조직된 수산사업소이다.

부모잃은 천아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로인들을 책임지고 돌봐주시려는 마음이 그토록 뜨거우시기에 지난 11월 이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였을 때에도 물고기품질보장문제에 대하여 깊이 관심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뜻깊은 그날 물고기를 하선하는 고기배 《단풍 18-01》호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창에 쌓인 물고기들을 보시며 출항을 하여 며칠만에 돌아오는가도 물으시고 물고기들의 선도를 보장하기 위한 방도에 대해서도 일일이 의논해주시였다.

이날 사업소를 돌아보시면서 올해 사업소에서 멸치, 숭어, 고등어, 전어, 삼치, 도루메기를 비롯한 물고기들을 고기배 척당 1 000t이상 잡아 계획을 초과수행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월8일수산사업소를 조직할 당시에는 수산사업소에서 해마다 3 000t의 물고기를 잡아 전국의 모든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천아들과 양로원의 로인들에게 매일 300g의 물고기를 정상공급할데 대하여 과업을 주었는데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려 이제는 하루에 400g씩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일군들의 눈앞에는 뜻깊은 1월8일수산사업소가 태여나던 잊지 못할 나날이 어제련듯 되새겨졌다.

어려해전 동해지구에 능력이 큰 수산물랭동시설을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인민군대에 주시고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1월의 강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새로 건설하게 될 수산사업소의 이름까지 친히 명명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오늘 여기에 찾아온것은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대한 물고기보장가능성을 토론하기 위해서이라고, 모든 원아들이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부러움없이 혁명의 계승자, 혁명의 꽃간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하시면서 이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300g씩 꼭꼭 먹이려면 년간 그 수량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몸소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신 우리 원수님.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수산사업소를 인민군대에 조직할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까지 현지에서 하달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자애로운 모습을 천만년세월이 흐른들 어찌 잊을수 있으랴.

수산사업소전설이 한창이던 때에는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값높이 평가해주시였으며 몇달후 조업을 앞둔 때에도 또다시 찾으시여 불수록 희한한 로동당시대의 걸작, 조선동해로구에 솟아난 새로운 풍경이라고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에 떠받들려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는 전국의 본보기, 표본으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다.

그러시고도 주신 사랑 부족하신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5(2016)년 11월 도루메기집중어로전투가 한창이던 때 사업소에 찾아오시여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는 당에서 제일 중시하는 사업소라고 하시면서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천아들의 친부모, 양로원 로인들의 친자식이 된 심정으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보내줄데 대하여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황금해력사의 첫 기슭에는 이렇게 최고사령부작전략에서 부모잃은 원아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로인들을 위한 가슴뜨거운 작전이 세워지고 그들을 위한 전문수산사업소가 특별히 조직되는 사랑의 전설이 새겨져있는것이다.

위대한 당의 하늘같은 그 은정에 떠받들려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단위인것만큼 물고기잡이에서의 과학화수준과 운반, 가공처리에서의 자동화, 현대화수준이 다른 수산사업소들에 비하여 질적으로 높아야 하며 물고기들에 대한 품질검사사업도 강화하여 천아들과 보양생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만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에 필요한 온갖 조치들도 다 취해주시였다.

사업소를 떠나시기에 앞서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는 당에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천아들과 양로원 로인들의 생활을 직접 책임지고 돌봐줄것을 결심하고 조직한 수산사업소이며 자신께서 제일 중시하는 최고사령부직속 수산사업소라고 거듭 강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정녕 조국의 바다를 아름답게 수놓는 황금해력사의 갈피갈피는, 최고사령부직속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의 자랑찬 연혁은 절세위인을 높이 모신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사회주의조국의 고마움을 만사람의 가슴에 더욱 깊이 새겨주고있다.

《황금해》호고기배는 먼바다로!

만선기를 날리며 돌아온 현대적인 고기배들, 물고기비린내가 풀풀 풍기는 포구, 밤낮으로 물고기폭포를 쏟아내는 하륙장, 포탄상자마냥 차곡차곡 쌓아올린 물고기블로크들이 가득찬 랭동저장고, 녀인들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가공장…

《바다 만풍가》의 구절들이 저절로 흘러나오고 흥겨운 노래가락에 맞추어 어깨가 들썩거리는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의 흐뭇한 풍경이다.

이 희한한 광경이 보고싶으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11월 동해지구의 수산사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실 때 먼저 이 수산사업소부터 찾으시였다.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처음으로 일떠선 현대적인 원양수산사업소이다.

뜻깊은 현지지도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겨울철집중어로전투에 진입한 인민군대 동해지구 수산사업소들의 물고기잡이실적을 매일 보고받고있는데 짧은 기간에 6만여t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어로공들을 만나 고무해주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몸소 《황금해-014》호고기배에 오르시여 만선하고 귀항한 선장과 어로공들을 축하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어로공들과 배전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담화하시면서 어황이 조성된데 맞게 뜨락과 전차어업을 배합하여 도루메기집중어로전투를 과감하게 벌려나갈데 대한 문제, 어장탐색의 과학화수준을 높여 중심어장을 신속히 타고앉아 련속적인 어로전을 벌려 항차당, 기망당, 연유 1t당 어획량을 높일데 대한 문제, 당에서 마련해준 고기배들의 기술관리를 더욱 개선하여 천성능유지를 잘할데 대한 문제, 어로공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을 잘 돌봐줄데 대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물고기잡이전투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조국을 멀리 떠나 오랜 기간 망망대해에서 어로전투를 벌릴 때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못 견디게 그리워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절절히 부르던 어로공들이 원수님을 몸가까이에서 뵈옵고 귀중한 말씀을 받아안을 때 그들의 가슴속에 끓던 크나큰 격정의 세계를 그 어디에 비길수 있으랴.

어로공들의 그 심정을 깊이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고기배에서 금방 잡아온 물고기를 퍼올리는 모습과 아외하륙장에 쏟아지는 물고기폭포를 보니 기분이 정말 좋다고, 이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시면서 어로공들과 종업원들을 몸가까이 무르실 때 푸른 하늘도, 단풍빛으로 물든 황금해도 감격하여 삼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듯싶었다.

이날 사업소를 돌아보시며 일군들에게 집중어로전투의 환경에 맞게 어로공들에 대한 조직사상생활조직과 지도를 짜고들고 필수5대교양을 진공적으로 벌림으로써 그들을 당정책의 절대적인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로 튼튼히 준비시켜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에 들리시여 사업소에 새겨진 황금해력사의 자욱자욱을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황금해의 새 력사가 창조되던 첫 시기에 벌써 원양수산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우리 식의 원양어업방법을 찾을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였으며 친히 5월27일수산사업소전설을 발기하시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사업소전설과 관련된 문제를 토의해주시면서 전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원양수산사업소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어구, 자재들과 성능높은 고기배들을 보내주시고 배이름도 《황금해》라고 명명해주시였을 뿐아니라 배이름의 서체까지 내려보내주신 그이의 다심한 은정의 세계와 명도의 손길은 정녕 끝이 없었다.

절세의 위인의 그 믿음과 사랑에 떠받들리여 현대적인 원양수산기지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는 《황금해》호고기배들의 고향으로 되였다.

혁명사적교양실을 나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랭동저장고에 들리시여서는 문앞까지 꽉 들어찬 물고기랭동블로크들을 보시면서 보물산이라고, 금피같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고 가공장에서는 물고기랭동블로크를 메끈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으며 통합조종실을 찾으시여서는 사업소의 생산과 경영활동정형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러다나니 오랜 시간이 흘러 밖에는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조국을 멀리 떠나 늘 먼바다에 나가 물고기잡이를 하는 어로공들과 헤여지기 아쉬우신듯 바쁘신 일정도 뒤로 미루시고 그들이 준비한 소박한 예술소조공연도 보아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언제나 명랑하고 락천적으로 생활하는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공연을 정말 잘했다고, 럼럼하고 물고기비린내가 풍기는 구수한 공연이라고, 당정책으로 일관되고 사상성과 예술성도 잘 결합된 바다사람들의 노래를 들으니 머리가 다 맑아진다고 하시며 그들의 정신세계를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로공들에게 안겨주신 그날의 그 사랑, 그 믿음을 전하며 《황금해》호고기배들의 고향에서는 오늘도 《바다 만풍가》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리고있다.

《황금해》.

우리 원수님께서 로동당시대의 황금해의 력사를 개척하자고 하시며 원양수산사업소의 새로 만든 현대적인 고기배들에 달아주신 그 이름이 새겨주는 의미는 참으로 크다.

황금해는 결코 자연의 바다가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진정이 어린 인민사랑의 세계, 당정책의 신봉자, 관철자들이 펼쳐가는 신념과 의리, 실천과 투쟁의 활무대가 바로 조선의 황금해이다. 《단풍》호고기배와 더불어 조국의 바다에 펼쳐지기 시작한 황금해력사가 《황금해》호고기배에 실려 먼바다로 새겨지고있는것이다.

지난 11월 동해지구의 인민군대 수산사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동해지구의 수산사업소들을 돌아보며 물고기산을 쌓아놓은것을 보니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정말 좋다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하시면서 매일, 매달 물고기잡이실적을 보고받을 때마다 자신께서도 시간을 내여 어로공들과 함께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싶은 심정이라고 기쁨에 넘쳐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준다.

조국의 바다를 물고기보물산을 끊임없이 낳는 황금해로 빛내여주시고도 부족하신듯 어로공들과 함께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싶은 심정이라고까지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위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의 바다를 황금해로 전변시켜주시고도 그 모든 성과를 인민군대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에게 통째로 안겨주시며 력사에 없는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를 마련해주시고 당 및 국가표창도 직접 수여해주시였을뿐아니라 당기가 펄펄 휘날리는 당중앙위원회청사를 배경으로 그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믿음과 은정을 무엇으로 다 전할수 있으랴.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세기적변혁을 창조해나가시는 천출위인, 황금해력사의 위대한 개척자이시다.

비범한 예지와 락천한 명도로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해마다 새로운 어로신화를 창조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은 악동하며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와 더불어 조국청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 준 혁
사진 본사기자 리 동 규

모든 전선이 증산돌격운동의 불도가니로 끓어번지게 하자

동해지구의 수산사업소들을 돌아보고

만선의 보고는 당중앙에, 바다향기는 온 나라에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전해진 혁신의 소식에 온 나라가 들끓고있다.

겨울철집중어로전투에서 짧은 기간에만도 수백t의 어획고 기록!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와 8월25일수산사업소, 1월8일수산사업소에서 황금해의 력사를 빛내이는 새로운 어로신화들을 계속 창조!

사회주의수호전의 주요전구에서 다발적, 련발적으로 울려퍼지는 승전포성은 우리의 미더운 어로전사들이 당중앙에 드리는 충정의 보고이며 온 나라에 바다향기가 더욱 차넘치게 하려는 불같은 명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의 정신과 기풍으로 투쟁함으로써 수산부문을 빨리 추켜세우고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인민들의 식탁우에 바다향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조선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 부두에 서있다.

하늘의 별들도 잠들고 사나운 파도소리만 귀전을 때리는 깊은 밤 여기서는 물고기하륙전투가 한창이다. 만선기를 휘날리며 귀항한 《단풍1-02》호 선원들의 륜륜한 모습이 전등빛에 밝게 어려온다. 옷은 바다물에 젖어있건만 만선의 기쁨속에 불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완공의 보고를 드려야 한다!

사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명절나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결사전을 벌리였다. 멋해전 우리 나라 바다에 물고기가 없다고 하던 패배주의자들, 쩍상주의자들의 궤변을 만선의 배고동소리로 짓부셔버렸던 이들은 올해에 또다시 보수주의자, 기술신비주의자들의 넉두리를 물리치며 물고기급등 및 행동저장능력을 높일데 대한 당정책관철에서 기치를 들었다.

한몸이 그대로 그물이 되고 추진기가 되여서라도 당의 수산정책을 결사관철하려는 견결한 투쟁기풍은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에서도 높이 발휘되였다.

《황금해-014》호 선장 방철호동무는 먼바다에 나가 어로전투를 지휘하던중 병으로 쓰러졌다. 고열로 신음하는 그를 선원들이 물으로 후송하려고 할 때 방철호동무는 붙은 전에 소중히 싼 무엇인가를 품속에서 꺼내들었다. 멋해전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에 참가하여 수여받은 영웅메달이다.

온 나라가 아는 영웅선장이지만 가슴에 영웅메달을 달고 나선적은 몇번 되지 않았다. 허나 언제나 영웅메달에 하루하루의 실적을 비추어보면서 살며 일한 그였기에 병마가 육체를 위협하는 순간에조차 전투장을 뜨지 않고 조타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았다. 모진 아픔을 이겨내며 날바다에서 어로전투를 지휘하는 그의 모습은 모두에게 가슴에 번쩍이는 메달을 달았다고 하여 영웅이 아니라 당정책관철을 위해 한몸을 깡그리 불태우는 사람이 진짜 영웅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었다.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1년 365일 신선한 물고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해주시려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원어버이사랑에 의하여 조직된 1월8일수산사업소, 이곳 어로공들은 또 어떤 격렬한 투쟁의 낮과 밤을 이어갔던가.

지난 5월말 파도를 헤가르며 기세좋게 어로작업을 해나가던 《단풍18-01》호의 기관이 순간에 딱 멈춰섰다.

《추진기에 바줄이 감겼다!》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다.

동서남북으로 방향없이 흔들리는 배, 머리우를 날아넘어 조타실을 쉴새없이 때리는 집채같은 파도, 갑판우를 무서운 속도로 연방 쓸어버리는 바다물…

이런 정황에서는 부득불 다른 배의 도움을 받아 사업소로 돌아가는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러한 때 《단풍18-01》호 어로공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던가.

배 한척한척이 귀중한 이때 한척도 아닌 두척의 배가 고기잡이를 못하게 된다면?

물고기가 아직 절반도 차지 못한 선창이 아프게 가슴을 찔렀다.

아니다!

그들은 이 단마디로 모든것을 단호히 부정해버렸다.

그 시각 《단풍18-01》호 어로공들의 눈앞에는 모든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원아들과 양로원의 로인들에게 물고기를 정상공급하게 하시려 바람세찬 포구를 찾고 또 찾으시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자애로운 모습이 가슴뜨겁게 안겨왔다.

그 숭고한 뜻을 받드는 길에서 무엇을 주저하랴, 그 무엇을 서슴으랴.

결사의 각오를 안고 세찬 풍랑속으로 떠여든 어로공 김철우동무, 당정책관철을 위해서는 죽음도 맞받아나가는 그의 희생적인 노력에 의해 《단풍18-01》호는 다시금 동음을 높이 울리였고 만선기를 휘날리며 사업소로 돌아왔다.

온 나라 방방곡곡의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을 찾아 매월 1만 5 000여리의 수송길을 달린 미더운 수송전사들의 심장속에도, 어로공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가공하느라 주야전투를 벌린 종업원들과 가족소대원들의 심장속에도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이 세차게 맥박쳤다.

만선의 보고는 당중앙에, 바다향기는 온 나라에!

진정 인민군대 수산부문 그 어느 단위에서나 울려나오는 이 심장의 체침은 오직 당정책의 절대적인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들만이 터칠수 있는 불같은 명세이다.

본사기자 김충성

당정책신봉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엄마전 동해지구 수산사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은 온 나라를 격동시키고있다.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와 8월25일수산사업소, 1월8일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은 겨울철집중어로전투에 진입하여 짧은 기간에 높은 어획고를 기록함으로써 당정책결사관철의 승전포성을 우렁차게 울리였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성대히 경축한 뜻깊은 올해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는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하게 먹이시려고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우리 당을 실천으로 결사옹위하려는 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이 낳은 결실이다.

◇ 당정책신봉자, 바로 이 말속에 오늘날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당정책을 접수하고 어떤 정신력으로 당정책을 옹호관철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백한 대답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이것이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올해 물고기잡이전투는 인민군대 수산부문과 사회수산부문에 꼭같은 어황조건을 제기하였지만 실적에서는 큰 차이가 났다.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와 8월25일수산사업소, 1월8일수산사업소의 로동계급은 배가 항행한다는것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백절불굴의 투쟁을 벌리며 만선기를 휘날렸다. 사나운 파도를 헤가르며 전진하는 고기배마다에는 어로공들만이 아니라 부대지휘관들도 타고있었다. 주변수산사업소들의 적지 않은 고기배들이 같은 어황통보를 받고서도 바다에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한 조건에서 이들은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력을 발휘하며 어로전투를 벌렸다.

당정책은 하늘이 무너지고 바다가 뒤집히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가 바로 기적창조의 원동력이다.

이것이 걸렸소, 저것이 걸렸소 하며 팔짱을 끼고앉아 우는소리나 하는 나약분자, 쩍상주의자들, 창조적인 안목으로 현실을 보지 않고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끄며 소방대식으로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겠다고 말로만 외우고 돌아앉아 제살궁리만 하는 개인주의자들은 오늘의 벅찬 시대에 살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다.

◇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을 만장약하고 황금해의 력사를 빛내이기 위한 돌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오늘의 생산돌격전은 우리의 승리적전진을 카로막고 우리 당중앙의 권위를 허물어보려고 최후발악하는 원쑤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이다. 지금이야말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공들처럼 명세가 아니라 실천의 보고를 당중앙에 드려야 할 책임적인 시기이다.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일본새에서부터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일군들은 불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화선식정치사업을 벌려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켜야 한다. 어렵고 부족한것이 적지 않은 조건에서도 자기 단위의 물질기술적잠재력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가장 큰 실리를 얻을수 있게 모든 작전을 벌려나가야 한다.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나라의 방방곡곡을 쉬임없이 찾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애국헌신의 로고를 자나깨나 잊지 말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용약 떨쳐나 황금해의 력사를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기수, 위훈의 창조자가 되여야 한다.

과학수산의 선도자가 될 때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에서는 어황조건이 불리한 올해에도 짧은 기간에 높은 물고기잡이실적을 기록하였다.

그 비결은 사업소일군들이 과학적인 어로전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린데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합니다.》

5월27일수산사업소는 먼바다어로작업을 위주로 하는 원양수산사업소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장거리통신체계를 구축하고 정상가동하는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일군들은 이것을 단순한 기술사무적인 문제로가 아니라 당정책관철과 직결된 사상적문제로 여기였다.

이들은 해당 단위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장거리통신체계구축에서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방향성안테나의 설계와 설치를 짧은 기간에 끝내였다. 과학기술로 어로전의 승리를 안아오기 위해 뛰고 또 뛰는 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장거리통신체계가 훌륭히 구축되였으며 현실에서 은을 내고있다.

사업소고기배들에 갖추어져있는 그물의 작업물깊이표를 놓고서도 어로작업의 과학화를 위해 늘 머리를 쓰는 이곳 일군들의 사업기풍을 잘 알수 있다.

이 사업소에 가면 조준어로, 명중어로라는 말을 들을수 있다. 그 뜻을 함축하면 화선에선 사수가 단방에 목표를 조준하여 맞히듯이 류동이 심한 물고기떼들을 명중하여 잡는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 물고기떼들은 바다물온도를 비롯한 여러가지 요인으로 하여 류동이 매우 심하다. 그런것으로 하여 일단 그물을 물다가도 물고기떼의 위치가 달라지면 어획량이 줄어드는것을 피할수 없는 일로 여기고있다. 먼바다어로작업을 위주로 하는 이 단위의 특성에서는 더욱기 그러하다.

사업소일군들은 수시로 변하는 물고기떼의 위치에 맞게 그물의 깊이와 아구리의 크기를 마음먹은대로 조절할수 있는 독특한 어로방법을 연구도입하였다. 한마디로 2척의 배가 그물을 끌 때 배사이간격과 끌줄의 길이를 조절하여 그물깊이와 아구리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변경시킬수 있게 한것이다.

사업소에서는 이에 토대하여 속도, 간격, 끌줄길이, 아구리중심, 수직 및 수평멀림과 같은 수치들을 분석종합하여 그물의 작업물깊이표를 만들었으며 모든 고기배에서 리용하도록 하였다.

그 우월성은 현실에서 뚜렷이 확증되였다. 조준어로방법을 도입하기 전에 비해 배들의 기망당 어획량은 대폭 늘어났으며 작업시간도 훨씬 단축되였다.

이 어로방법을 연구도입하는데서 선도자적역할을 한 사람은 다름아닌 사업소책임일군이였다.

과학잡지에 실려있는 짤막한 글에서 조준어로방법에 대한 착상을 얻고 복잡한 미적분방정식을 풀기 위하여 한밤을 지새운 사람이 지배인이라는 사실은 과학수산에 대한 사업소일군들의 관점과 립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누구나 선뜻 나서기 주저하는 시험항해길에도 서슴없이 나섰고 날바다에서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시험결과를 하나하나 수첩에 적어나갔다. 실패의 고비도 적지 않았지만 끝끝내 과학적인 조준어로방법을 완성하고야말았다.

당의 수산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앞세를 메고 뛰여야 할 사람들은 다름아닌 일군들이다. 과학수산을 해야 한다고 말로만 외우고 구호나 써붙이는것으로 금땐다면 언제 가도 당정책관철에서 는에 띄는 성과를 안아올수 없다.

5월27일수산사업소의 현실은 일군들이 전문가 못지 않은 실력을 지니고 과학수산의 개척자, 선도자가 될 때 당정책관철에서 우렁찬 승전포성을 울릴수 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리호성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가지고 일해나가야 합니다.》

조선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는 황금해력사창조의 고향, 《단풍》호고기배들의 고향으로 온 나라에 널리 알려진 수산부문의 본보기단위이다.

부단히 새로운 목표를 내세우고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하는것이 이 사업소의 특징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 요인은 무엇인가.

사업소의 물고기하륙능력이 불과 몇해사이에 4배로 뛰여오른 사실을 놓고보자.

사실 사업소에서는 3년전부터 현대적인 하륙설비를 두대나 갖추어놓았으며 선창의 물고기가 수송관을 따라 가공장에 직접 가닿을수 있는 체계도 완벽하게 구축해놓았었다. 그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정도이면 물고기하륙속도가 대단하다고 여기고있었지만 일군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일군들은 부두가에 작업공간을 넓게 조성하고 어려척의 고기배가 동시에 물고기를 부려올수 있게 두대의 하륙설비를 더 갖추어놓기 위한 사업을 내밀었다. 이로 하여 물고기하륙시간은 또다시 단축되였다.

급동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전개한것도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이다.

이미전에 사업소에는 능력이 큰 급동설비가 갖추어져있었다. 하지만 수산사업소들의 급동 및 행동저장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당정책을 심장에 쪼아박은 일군들은 더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특히 11대의 급동기에 물고기를 동시에 넣고 가동시키던 종전의 방법에서 벗어나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2~3대씩 가동시키는 새로운 방안을 택하였다.

결과 급동능력은 종전에 비해 2.4배이상 높아졌으며 하루에도 수백t의 물고기를 급동할수 있게 되였다.

우의 사실들은 이곳 일군들의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일본새를 뚜렷이 보여주는 세부라고 말할수 있다.

사업소에서는 올해에 절임랑크를 짧은 기간에 개조하여 수천t능력의 행동저장고로 꾸림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금 이곳 일군들은 기계화, 자동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현대적인 가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또 다른 작전을 펼치고있다.

이것만 놓고도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진취적인 일본새를 엿볼수 있다.

이것이 걸렸소, 저것이 모자라오 하면서 뚱뚱하고 앉아뭉개는 일부 단위 일군들의 일본새와 얼마나 대조적인가.

8월25일수산사업소 일군들의 사업경험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투철한 관점과 립장에서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가지고 일해나갈 때 당정책관철에서도 선봉에 설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경쟁열풍과 집단주의위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경쟁열풍으로 생산과 건설에서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입니다.》

두해전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고기배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업소의 일군들은 《단풍》호고기배별 사회주의경쟁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조직하여 해마다 물고기잡이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그렇다면 사업소의 고기배별 사회주의경쟁에서 주목되는것은 무엇인가.

우선 고기배들에 대한 어구, 자재보장과 후방사업문제를 들수 있다.

이곳 일군들은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기에 앞서 매 고기배들에 어구, 자재와 후방물자를 충분히 보장해주는것을 철칙으로 내세우고있다.

이것은 어로공들이 아무 걱정없이 물고기잡이에 전념하도록 하자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그들의 경쟁열의를 높여주는데서도 중요한 작용을 하고있다.

모든 배의 상태가 같고 어구, 자재와 후방물자도 똑같이 준비되여있으니 생산실적은 전적으로 어로공들에게 달려있다는것을 모두가 자각하게 되는것이다.

일군들은 경영관리를 짠지게 하고 자체의 후방토대를 튼튼히 구축하여 필요한 어구, 자재와 후방물자를 정상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사업소의 고기배별사회주의경쟁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집단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고기배들이 1등과 거의 대등한 물고기잡이실적을 기록하고있는것이다.

실례로 고기배들사이의 경험교환을 들수 있다.

일군들은 경쟁기간 물고기잡이실적이 높은 고기배들의 경험과 기술을 하나하나 종합하여 집체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선장들에게 알려주어 합리적인 어로방법을 제때에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배들이 바다에 나가있을 때에도 무선통신을 통하여 고기배들의 일별실적과 경험을 즉시 알려주어 어로공들의 경쟁열의를 고조시키였다.

경쟁을 조직하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설계가, 작전가, 실천가라는 관점과 립장에서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늘 머리를 쓰는 이곳 일군들의 사업태도는 응당한 절실을 가져왔다.

지난해 인민군대 수산부문적으로 진행된 《단풍》호고기배별 사회주의경쟁에서 이 사업소 배들은 모두 앞선 순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올해에만도 고기배 척당 1 000t이상 물고기를 잡아 계획을 초과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주의경쟁은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조직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옳은 방법론을 찾아쥐고 작전과 지휘를 결패있게 해나갈 때 그 어떤 조건에서도 전례없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는것, 바로 이것이 1월8일수산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을 통해 우리가 찾게 되는 결론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우리 식대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당의 로선관철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

자력갱생정신을 높이 발양시켜

승호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우리 당력사에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혁명적구호가 제시된 때로부터 40년이 되여온다.

이 구호를 높이 들고 올해에 자력갱생정신으로 맹렬한 투쟁을 전개한 전투력있는 당조직들가운데는 승호군당위원회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력사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그 위력이 뚜렷이 검증된 자력갱생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에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이곳 군당위원회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당결정집행을 위한 투쟁에서 자력갱생정신을 발양시키는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성과를 이룩한것이다.

몇달전에 있은 일이다.

올해에 작전하고 추진하는 일거리들의 집행정형을 전반적으로 따져본 군당위원장은 지난 1월 군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채택된 당결정의 해당 조항을 다시금 돌이켜보았다.

방대한 과업을 수행할 방도로 자체의 기술력량과 경제적잠재력을 총동원하고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림에 대하여 당결정에 토아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조건타발을 하면서 일자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단위들이 있었던것이다.

남에 대한 의존심을 없애지 못하고있는 여러 단위의 실태를 놓고 군당책임일군은 사색을 거듭하였다.

당결정집행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자면 자력갱생정신을 발양시키는 사업을 보다 공세적으로 벌려야 한다.

여기에 올해전투목표수행의 지름길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군당책임일군은 선전선동부 일군들과의 진지한 협의밑에 자력갱생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주도세밀하게 세워나갔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군안의 당조직들에서 우리식 사회주의건설력사이자 자력갱생의 력사이며 자력갱생이야말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보검이라는것을 뼈에 새겨주는 사상전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도록 하였다.

실례로 자력갱생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학습을 진행하기에 앞서 책임일군들이 학습강사의 날에 참가하여 출연제강에 대한 함평도 해주면서 대중이 공감하고 그들의 심장을 뛰어잠는 산학습으로 되도록 이끌어준것을 들수 있다. 또한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군안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순회하면서 경제선동을 진행할 때에는 선동시와 노래 《자력갱생 기치높이 다시 한번 대고조로》와 같이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종목들을 선정하게 하는 등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특히 군당위원회일군들이 앞장선 가운데 그 어느때보다도 활발히 진행된 만달산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는 커다란 효과를 나타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투사들이 남긴 혁명적구호문헌들은 누구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위력을 절감하고 오늘의 자력갱생대진군에서 그 정신을 남김없이 발양시켜나갈 결의들을 굳게 다지게 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또한 온군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차넘치게 하는데서 일군들의 이신작칙을 중요한 무기로 삼았다.

승호지구에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새로 건설하는 사업, 승호혁명사적교양실을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 협도업적단위인 만달협동농장 제3작업반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당결정집행을 위한 투쟁이 격렬히 벌어지는 전투장마다에서 군당위원회일군들은 대중에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한껏 북돋아주는 능숙한 선전자가 되고 진격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제끼는 돌격전의 기수가 되였다.

군당위원회에서 앞선 단위들의 모범을 통하여 어느 단위에서나 자력갱생정신이 높이 발양되도록 떠밀어나간것도 평가할만 한 점이다.

일군들의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당적으로 밀고나가던 때의 일이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군식료공장과 중앙은행 황해북도 승호지점 일군들의 사업기풍을 중시했다.

지난해에 당과류생산공정의 기술개건을 훌륭히 해제낀 식료공장에서는 올해에도 현행생산을 기백있게 내밀면서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술작업만의 현대화를 본때있게 추진하고있었다. 승호지점에서도 단위의 부지가 제한되어있는 불리한 조건에 맞게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탐구하여 후방토대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성과를 확대하고있었다.

그 밑바탕에는 바로 언제나 대중속에 몸을 푹 잠그고 자력갱생정신을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는 그 단위 당, 행정일군들의 땀과 노력, 창발적인 사업기풍이 놓여있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모이는 기회를 비롯한 여러 계기에 그 단위 일군들을 적극 내세워주는 한편 군안의 일군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지에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일군들이 패배주의를 불사르고 자력갱생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것만큼 당결정집행에서 성과가 난다는것을 실물로 깨닫고 더욱 분발하도록 하였다.

군안의 당조직들의 전투력이 높이 떨쳐지고 당결정집행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군안의 농업부문 당조직들은 그처럼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농사를 이악하게 짓도록 당적지도를 잘 짜고들었으며 올해에 군앞에 맡겨진 알곡수매계획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여러 지방공업공장의 개건과 하천제방공사를 비롯하여 년간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체력한 당결정들의 집행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자력갱생정신을 발양시키는 사업은 단위실정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되여야 한다. 그래야 당결정집행에서 좋은 결실을 거둘수 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이 벌어지는 벅찬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을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고 당결정집행을 적극 추동한 승호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에는 본받을 점이 있다.

본사기자 리 정 수

첨단돌파전의 선구자들로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 초급당위원회에서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대통로를 열고 최후승리를 앞당길데 대한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나가도록 추동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주체공업,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며 최첨단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야 합니다.》

연구소의 과학자들앞에 어느 한 첨단기술제품을 개발할데 대한 과업이 나섰을 때의 일이다.

실태는 어려웠다. 과학자들에게는 그처럼 고속화, 고정밀화된 첨단기술제품을 개발해본 경험이 없었다. 그런것으로 해서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런 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과학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첨단기술제품을 반드시 완성해내도록 추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하나의 연구과제를 놓고서도 여러 연구실과 과학자들의 지혜와 열정이 합쳐져야 하는 조건에서 초급당위원회는 집단주의위력을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험치 않은 초행길, 탐구의 생눈길이였다. 과학자들이 어려운 고비에 맞다들릴 때가 많았다.

그때마다 초급당일군은 과학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뜻깊은 올해의 첫 현지지도로 국가과학원을 찾으시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과학자들이 정말 큰일을 하고있다고 하시며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하늘같은 은정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주었다.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와 고무는 과학자들에게 큰 힘으로 되였다.

로보트연구실, 일용품연구실, 조종장치연구실의 실장들을 비롯하여 연구집단에 망라된 과학자들은 피타게 사색하고 탐구하며 성공의 문을 하나하나 열어제끼였다.

첨단기술제품들에 대한 련동시험을 반복하여 진행할 때였다. 정밀도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은 처음 해보는 일인데 편찮다고, 그쯤하면 되지 않았는가고 하였다. 하지만 과학자, 기술자들의 심장속에서는 이런 웨침이 울려나왔다.

100% 우리의 힘으로 완성한 우리의 제품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과학기술로 당과 혁명을 보위하는 전위부대, 전초부대라는 가장 고귀한 칭호를 안겨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보답하자!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첨단기술제품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도록 과학자, 기술자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연구소의 청년과학자들을 대담하게 믿고 어려운 과제도 맡겨주어 그들이 청년과학자의 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여 과학자, 기술자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첨단기술제품인 공업용6자유도관절로보트와 빛섬유레이자절단기를 훌륭히 완성해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 투쟁에서 이곳 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매우 크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전선을 사회주의수호의 전초선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과 기대를 순간도 잊지 않고 두뇌전, 기술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도록 초급당위원회는 사상교양사업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

본사기자 채 인 철

열린 문과 닫긴 문

‖ 강계은하피복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

얼마전 강계은하피복공장을 찾았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한것이 있다.

수백명의 종업원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서 공부를 하고있으며 지난 시기에 비해 많은 기술혁신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는 사실이였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현실앞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에게 김해란지배인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 사연을 알자면 열린 문과 닫긴 문에 대한 사연부터 알아야 합니다.》

열린 문과 닫긴 문!

호기심이 동한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 저도모르게 끌려들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몇해전 공장에서는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과학기술보급실을 멋들어지게 꾸리였다. 그리고 누구나 이곳을 찾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어느날 종업원들의 기술혁신성과정형을 료해해보던 초급당일군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였다. 과학기술보급실리용을 누구나 똑같이 하였지만 기술혁신성과를 내놓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던것이다.

(무엇때문일가?)

초급당일군은 깊은 사색속에 그 원인을 분석해보았다.

과학기술보급실에로 걸음을 자주 한다고 실력이 저절로 올라가는것이 아니였다.

중요한것은 배움의 열망이 높고 무엇인가 해보려는 야심이 있어야 했다.

가공5직장 2작업반 반장 장혜림동무의 실례가 그것을 보여주고있었다.

과학기술보급실운영과정에 그는 국가망을 통하여 새로운 자료를 열람하였다. 전직천기술단설어박이에서 여러 공정을 거치지 않고 단번에 가공하는 새로운 지구장비에 대한것이였다. 피복가공에서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나서고있던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그는 대담하게 결심하였다.

그것을 만들어볼 야심밑에 장동무는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끝끝내 자기가 만든 지구장비를 기술혁신성과전시회에 내놓을수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과학기술보급실을 찾은 종업원들중에는 좋은 기술혁신성과를 내놓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과학기술보급기지들이 훌륭히 꾸려지고 문이 활짝 열려져있어도 그것을 리용할 종업원들이 배우려는 열의가 없다면 그 문은 닫긴 문과 같다고 봅니다.》

지배인의 말이였다. 그는 계속하여 초급당위원회가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닫긴 문을 열어주던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종업원들이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의 생활력을 실천을 통해 폐부로 느끼게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초급당위원회는 그를 위한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우선 공장에서 매월 진행하는 기술혁신성과전시회를 통하여 과학기술보급실운영과 관련한 종업원들의 관심을 높여주어 누구나 주동적으로 보급실을 찾도록 추동하였다.

이와 함께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새 기술도입과 관련한 소개판을 게시하고 과학기술보급실운영에 잘 참가하여 높은 실적을 낸 종업원들의 사진과 성과자료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계기마다 적극 내세워주었다.

결과는 좋았다.

많은 종업원들이 자기들도 다음번 기술혁신성과전시회에 새 제품을 내놓겠다는 만만한 야심을 안고 과학기술보급실을 찾고 찾았다.

이 과정에 과학기술보급실은 수백명의 원격교육대학 학생들이 강의를 받는 교정으로, 종업원들 누구나 즐겨찾는 곳으로 되였다.

《이렇게 초급당위원회가 종업원들의 마음과의 사업을 잘한 결과 누구나 관점을 바로가지고 과학기술보급실운영에 참가하게 되였습니다. 결국 누구나 과학기술보급실의 주인이 되여 열린 문으로 다같이 들어설수 있게 되였답니다.》

지배인의 이야기는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었다.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에 의하여 지금 어느 단위에나 과학기술보급기지들이 훌륭히 꾸려져있다.

그런데 그 생활력이 발현되는 측면에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어떤 단위에서는 과학기술보급기지가 종업원들의 창조의 나래를 펼쳐주는 곳으로 자기의 생활력을 다 발휘하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단위들도 있다.

당조직들은 과학기술보급사업을 중시하는 당의 의도에 맞게 과학기술보급기지의 운영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진행함으로써 단위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기술혁신의 주인으로, 자력갱생의 강자로 더욱 억세게 키워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최 영 길

제힘을 믿으면 천리도 지척

김형직군 대응리당위원회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제힘을 믿고 자력으로 경제강국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가도록 적극 고무추동하여야 합니다.》

2년전 어느날 새로 임명된 리당위원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리를 돌아보았다.

편의봉사시설들이 원만히 갖추어져있지 않아 농장원들이 불편을 느끼고있었다.

일부 일군들을 만나보니 단위의 조건이 불리하여 개건공사를 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리에 그것을 맡아 해제낄만 한 력량도 없어 제간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에서 데려와야 한다고까지 하였다.

남에 대한 의존심, 그것이 문제였다.

(하다면 여기라고 왜 제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없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 리당일군은 작업반들을 돌아보면서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을 만나보았다.

담화도 하고 농사일과 건설등도 함께 해보면서 몇몇 농장원들의 이름을 익혀두었다. 눈썰미가 있고 손재간이 있는 사람들이였다.

그들중 어느 한 농장원에게 리당일군은 편의봉사건물의 설계를 맡겨주었다. 건설설계에 조예가 깊은 그를 믿었던것이다.

그 농장원은 선뜻 시작을 떼지 못하였다. 그렇게 중요한 과업이 자기에게 맡겨질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런 그에게 리당일군은 고향땅을 꽃피워가려는 불타는 애국의 마음만 간직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뒤에서 적극 밀어주겠으니 걱정말고 내밀어보라고 하면서 신심을 주었다.

당조직의 믿음에 고무된 농장원은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쳤다. 훌륭히 꾸려진 단위들을 돌아보며 많은것을 배웠다. 창조적인 사색과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이며 그는 설계를 완성해냈다. 좀 서툴기는 하였지만 그의 설계도면을 본 일군들은 착상이 새롭고 훌륭하다고 하면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였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생각도 갈마들었다.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남을 쳐다보려고 하였던 지난날이 되새겨졌던것이다.

일군들은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분발해나섰다. 작업반, 분조들에 나가 제간이 있는 사람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자기의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적극 밀어주었다.

당조직의 믿음은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키는 위력한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그만큼 이룩되는 성과도 컸다. 알곡생산량이 무쩍 늘어났으며 리의 면모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식료가공설비들이 원만히 갖추어져 농장원들의 편의보장에서도 전진이 이룩되였다.

이를 통해 찾게 되는 교훈은 매우 크다.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서는 사람에게는 천리도 지척으로 보이며 그 어떤 전투목표도 단숨에 점령할수 있다는것이다.

본사기자 허 일 무

자력갱생, 견인불발의 투쟁정신, 창조본때를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대흥청년영웅광산에서— 본사기자 찍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이 몽골 부수상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으로 몽골을 방문하고있는 외무상 리용호동지는 9일 어. 엔흐투브신 몽골 부수상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성원들, 몽골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주조 몽골 특명전권대사, 몽골대외관계성 성원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스키기재전시회 진행

혜산시에서

얼마전 혜산시에서 스키기재전시회가 진행되였다.

량강도의 책임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스키애호가들이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량강도같은 산간지대에서는 겨울에 스키를 많이 타도록 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량강도지방에서는 스키가 교통수단의 하나로 리용되기도 하고 사냥에도 널리 활용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95(2006)년 3월 새로 건설된 백두산지구 체육촌을 돌아보시면서 체육을 대중화하여 우리의 모든 청소년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5(2016)년 11월 사자봉체육단 스키선수들의 훈련을 보시면서 백두산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훈련하는 선수들답게 앞자리를 양보하지 말라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량강도를 비롯한 눈이 많이 내리는 지대들에서 청소년들이 스키를 많이 타게 하는것이 좋다고 하시며 스키는 체력단련에도 좋고 대담성과 용감성을 키워주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도에서는 해마다 스키기재전시회를 열고 스키기재생산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였다. 그리고 백두산지구 체육촌과 혜산시교외에 스키장을 꾸려놓고 스키경기를 자주 조직하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수백점의 다종다양한 스키기재들이 전시되여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전시회에서는 먼저 스키기재와 스키타기상식에 대한 해설이 있었다.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체육열풍으로 온 도를 흥성거리게 할 열의에 넘쳐있었다.

특파기자 전 철 주

이딸리아인도주의협조단체 《싼떼쥐디오》공동체 위원장일행 도착

이딸리아포 마르꼬 이딸리아인도주의협조단체 《싼떼쥐디오》공동체 위원장과 일행이 10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중시한 문제

강원도과학기술위원회에서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관철하는데서 과학기술사업을 지도하는 단위들의 지도력을 높이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최근시기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시대의 앞장에서 비약의 큰걸음을 내짚고있는 강원도의 자랑찬 현실은 이 문제의 중요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강원도과학기술위원회 사업은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높이는데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점들을 시사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인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지도단위의 생명력은 지도력이며 지도력의 담보는 지도력량의 강화와 지도방식의 혁신에 있다.

이것은 강원도과학기술위원회 사업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찾은 결론이다.

그러면 이 단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를 보기로 하자.

도과학기술위원회가 자기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틀어쥔 고리는 두가지이다.

그것은 지도력량의 구축과 지도방식의 혁신이다.

도과학기술위원회사업의 어제와 오늘이 근본적으로 다른것이 바로 이 점이다.

지도력량구축문제만 보아도 지난 시기와는 달리 상급당조직과의 련계밑에 한명한명의 인재들을 찾아내고 엄선하여 배치하는 체계를 세움으로써 말그대로 단위를 인재들의 집으로 만든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실력을 비상히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 큰 품을 넣었다. 과학기술학습, 연구토론회, 참관, 실력판정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력전을 드세게 벌렸다.

여기서 제일 중시한것이 책임일군들의 실력문제해결이다.

아는것만큼 실력전을 옳게 지휘할수 있기때문이다.

위원장이 앞채를 메고나섰다. 그의 높은 실력은 불같은 정신력과 열정의 산물이였다.

그를 두고 화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수리공학, 금속공학 등 여러 과학기술분야에 정통한 팔방미인이라고 하는 이곳 일군들의 말은 결코 우연치 않다.

책임일군들부터 실력전의 한복판에 뛰여들어 키수적인 역할을 다한것은 단위를 실력가형의 집단으로 만드는데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지도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한것, 이것은 위원회의 지도력을 높이는데서 가장 근본적인 고리의 하나를 푼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것은 지도방식의 혁신이다.

지난 시기의 이곳 일군들의 지도방식은 한마디로 사무실형이였다.

사무실에 앉아 우에서 내려오는 문건들을 그대로 아래단위들에 내려보내는 문건전달자, 책상머리에서 현실의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은 계획서들과 갖가지 문건들을 만드는 문서작성자, 제기되는 문제들을 아래단위들에 전화로 포치하고 사업정형을 전화로 받아내는 전화직일자, 아래 일군들이 돌고온 문건들에 수로나 하는 문건결재자…

말그대로 지도사업의 무대란 고작 사무실이 전부였다.

그렇다고 이런 사업기풍이 크게 문제시되지도 않았다. 한것은 그것이 굳어질대로 굳어진 틀이였기때문이였다.

이런 사업방식이 일군들을 눌뜬 소경, 귀달린 벙어리로 만들게 한것은 자명한것이였고 그와 함께 도의 과학기술사업이 크게 전진하지 못한것은 필연적이였다.

그러나 오늘은 완전히 다르다.

일군들의 지도사업방식이 사무실형으로부터 현장형으로 자기의 모습을 바꾼것이다.

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여러차례 키를을 드린 강원도사람들답게,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모든 일군들이 전투장들에 달려나가 현장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기능공들과 한 전호에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제작하고 함께 책임지며 지도사업을 심화시키는 기풍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주목되는것은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 조직운영하는 수십개의 새 기술연구도입조에 위원회의 일군들을 각각 1명씩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하도록 한것이다.

위원회가 여기서 노린것은 지도사업을 현실에 접근시키자는데도 있었지만 보다는 그 과정에 일군들을 그 무엇에도 막힘이 없는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생생한 실력가들로 키워 지도사업의 실효를 최대로 높이자는데 있었다.

현실은 그 실효성과 생활력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사무실의 주인공들이 현장의 주인공들로 되여 현장지도를 강화하니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이 즉시즉시 해결되였으며 성과는 시간을 앞당겨 련발적으로, 다발적으로 이룩되게 되였다.

알루미나생산공정, 탄산소다생산공정, 돌종이생산공정, 백세멘트생산공정, 통판생산공정, 인공잔디생산공정, 타일 및 위생자기생산공정…

최근 4~5년간에만도 30여개의 공장, 기업소에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60여개의 생산공정을 도자체의 힘과 기술로 꾸려놓았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오늘 강원땅에 태여난 이 모든 자력갱생의 창조물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대담하게 작전하고 전개한 도당위원회일군들의 역할과 함께 도과학기술위원회일군들의 참신한 사업기풍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이런 사업기풍이 안아온 성과는 이것만이 아니다.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일하는 과정에 위원회안의 모든 일군들의 실력이 비상히 높아진것은 참으로 귀중한 성과라고 말할수 있다.

그들이 얼마나 높은 실력을 발휘해왔는가는 최근 4년간의 자료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적인 과학기술축전들에서 련이어 우승, 390여건의 과학기술성과증서, 수많은 과학연구론문…

이렇듯 지도력량이 인재형으로 강화되고 지도방식이 현장형으로 전환됨으로써 이 단위는 도의 과학기술발전을 주도해나가는 기관차, 시대의 앞장에 선 전형단위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게 되였다.

그렇다.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높이는데서 지도력량의 강화와 지도방식의 혁신이라는 두 고리를 틀어 전례없는 실효를 안아온 강원도과학기술위원회 사업경험은 과학기술사업을 지도하는 모든 단위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본사기자 김 영 철

우리는 조국의 불빛을 지켜선 전초병이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화학1직장 로동계급

발전설비들이 기운차게 돌아가는 전력생산전투장파는 달리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화학1직장은 조용하다. 직장의 종업원들이 하는 일 또한 전력생산에 필요한 물을 여러 려과공정을 거쳐 보이라들에 보내주는 작업이여서 평범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련합기업소에서 맡고있는 몫은 자못 크고 중요하다.

자기들이 다루는 물을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조국의 부강번영에 활력을 부어주는 생명수처럼 생각하며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맡은 초소를 지켜가는 직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심은 자기 부모처자에 대한 사랑, 자기 고향마을과 일터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싹트게 되며 그것이 나아가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리영수동무는 운영4작업반 당세포위원장이다. 군사복무를 마치고 제대된 후 기업소의 청년돌격대에 망라되여 여러 건설전투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그가 화학1직장에 배치된것은 10년전이였다. 그날 직장일군과 함께 일터의 여러곳을 돌아보는 그의 생각은 깊었다. 수없이 많은 려과기와 크고작은 뽐프며 진동기들,

직장에서 하루에 다루는 물의 량은 또 얼마나 많은것인가.

바로 그 하나하나의 설비가 지금까지 나라의 전력생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하면서 이제는 동무도 대동력기지의 숨결을 이어주는 이 중요한 설비들의 주인의 한사람이라고 하던 직장일군이 의미심장하게 마감에 한 말이 그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이제부터 이 설비들이 동무의 전투무기이고 살붙이라고 생각하면 되오.》

리영수동무는 설비가 잠시라도 동음을 멈춘다면 자기의 심장이 멎은것과 같다는 마음을 안고 매일 먼 순회길을 이어가면서 가동상태에 세심한 주의를 돌렸으며 기름주기며 나사조임 등도 깐깐스레 하였다. 그 나날 어느 한 전동기에 이상이 생긴것을 제때에 발견하고 대책을 세워 전력생산이 중단없이 진행될수 있게 한 그였다. 직장의 연료분석작업반에서 일하고있는 그의 녀동생도 맡은 일에 헌신하는것으로 하여 집단의 사랑을 받고있다.

화학1직장에는 책임성높은 두 분석공이 있다. 운영4작업반 김명숙동무와 운영3작업반 김춘영동무이다. 그들은 자매간이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비록 남들의 눈에 잘 띄우지 않지만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더없이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한 그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오랜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자기 임무에 정통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고 지식의 탑을 쌓기 위해 지새운 밤은 또 그 얼마인지 모른다.

맡은 일을 잘하여 혁신자로 집단의 존경을 받고있는 그들이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면서 계속 분발하고있다.

직장의 담당기사인 옥춘영동무의 아버지는 1960년대에 당의 부름을 받들고 수도 평양에서 북창의 대동력기지로 자원진출한 기술자이다. 그때부터 그는 전력생산자라는 영예와 긍지를 안고 화학1직장에서 오래동안 성실하게 일하였다. 한직종에서 수십년 일하는 과정에 그는 많은 과학기술성과를 생산에 도입하여 발전기의 동음이 높이 울리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는 년로보장을 받은 후에도 자주 직장에 나와 새세대 로동자들에게 전력증산으로 우리 당을 받들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뿌리가 되여 순절한 마음을 바쳐온 전세대들의 고귀한 정신과 투쟁기풍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고 그들이 주인구실을 다하도록 하는데 품을 아끼지 않았다.

두해전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에는 매일과 같이 직장에 나와 로동자들과 함께 설비관리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를 해결한 그였다.

년로한 그를 걱정하여 일군들이 건강을 돌보라고 권고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하루라도 발전소구내를 걷지 않으면 어쩐지 마음이 허전해서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저 뛰니뛰니해도 일이 보약입니다.》

한생을 당이 맡겨준 일터를 지켜 변함없는 한모습으로 살아온 그에게 있어서 전력생산 못지 않게 크고 중요한 임무는 딸이 자기의 뒤를 잇게 하는것이였다. 하기에 그는 옥춘영동무가 전문학교(당시)를 졸업하자 자기가 일하던 직장에 서게 하였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배움의 나래를 한껏 펼친 후 실험공을 거쳐 담당기사가 된 옥춘영동무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북창로동계급의 영예를 빛내이는 길에 전력생산자의 값높은 삶도 행복도 있다고.

옥춘영동무는 그 당부를 가슴깊이 새기고 아버지가 섰던 초소를 억세게 지켜가고있다.

자기들의 일터를 조국의 부강번영과 이어진 영예로운 초소로 여기고 대동력기지의 숨결을 지켜 헌신의 땀방울을 바쳐가는 화학1직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지난날 그러하였던것처럼 오늘도 매일도 전력증산으로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들려는것은 화학1직장만이 아닌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가슴속에 굳건히 자리잡은 철석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본사기자 김 진 욱

일터에 대한 애착심을 안고

수풍발전소 전기직장에서

얼마전 우리가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전투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는 대규모수력발전기지 수풍발전소를 찾았을 때였다.

전력증산의 동음 높은 생산현장에서 우리와 만난 발전소일군들이 제일먼저 내세워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전기직장 로동계급이였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가슴속에는 어떤 지향이 간직되여있는것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는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자기가 맡은 초소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풍발전소 전기직장은 발전설비들을 정상적으로 점검보수하여 전력생산과 송전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있다. 하기에 이들은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자기가 맡은 초소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속에는 옥외작업반 반장 김명훈동무도 있었다.

40년전 옥외작업반 로동자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뗀 그는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지켜 묵묵히 일해오고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여 한직종에서 그렇게 오래동안 성실히 일해올수 있었는가고 물을 때마다 김명훈동무는 사람좋은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군 한다.

《나야 발전기의 동음을 들으며 자란 수풍로동계급의 자식이 아닙니까.》

이런 그였기에 얼마전 직장앞에 전류변성기를 시급히 보수해야 할 과제가 나서자 삭도에 의한 변성기운반방법을 내놓음으로써 변성기를 산중턱에서 안전하게 끌어내려 성과적으로 보수하는데 크게 기여할수 있었다.

전기직장 로동계급 누구나 칭찬을 아끼지 않는 오랜 기능공인 손정길동무 역시 수십년세월 발전소의 숨결을 지켜 성실히 일해오고있다.

비가 많이 내리거나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면 깊은 밤에도 전지불을 켜들고 옥외변전소들과 철탑으로 달려가 안전상태를 확인하고서야 돌아서는 사람이 손정길동무였다. 나이도 적지 않지만 남들이 선뜻 오르기 저어하는 철탑에도 서슴없이 올라 점검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군 하는 그의 성실한 일본새는 직장에 새로 들어오는 로동자들의 거울로 되고있다.

어찌 이들뿐이랴.

휴식일, 명절날이 따로 없이 점검보수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는 옥내작업반원들이며 맡은 일에서 언제나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직장의 자랑으로 되고있는 선로작업반원들을 비롯한 직장로동계급 누구나의 가슴속에도 대규모수력발전기지의 동음을 지켜간다는 긍지와 보람이 꽉 차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나라의 전력생산이 담보되고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이 앞당겨지는것이다.

본사기자

결사의 각오, 불같은 열정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열설비보수사업소 제관직장에서

전력생산을 위해 헌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열설비보수사업소 제관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자각을 가지고 공민적의무를 다하는 길에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제관1작업반에 어느 한 보이라설비에 대한 대보수과업이 나섰을 때였다.

뜻밖의 사정으로 천정기중기를 리용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10여m의 높이까지 육중한 철판들을 끌어올려 용접해야 하는 작업은 정말 힘한 일이 아니였다.

직장의 모든 작업반이 달라붙어 돕자는 의견이 제기되였을 때였다.

《그렇게 하면 그만큼 다른 작업반이 맡은 설비보수에 지장이 되지 않습니까. 기어이 우리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작업반장 홍병식동무가 직장장에게 한 말이였다.

대보수전투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제관1작업반원들은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여 철판들을 끌어올리였고 련이어 날이 새도록 용접불꽃을 날리였다.

보수전투의 나날 작업반의 유일한 녀성인 한경애동무는 다른 사람들과 꼭같이 전투장을 떠나지 않았다. 작업반에서 일하다가 순직한 남편의 뒤를 이어 밤을 밝혀가며 입손도 도와주고 후방사업도 하는 그를 로동자들은 몇번이나 집으로 떠밀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에게서는 이런 목소리가 울려나오군 하였다.

《종이장도 맞들면 가벼운것이 아니겠어요. 나도 작업반의 한성원입니다.》

이런 마음들에 받들리여 대보수전투는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작업반의 보수실적이자 직장의 성과이고 그것은 곧 전력생산의 동음으로 이어진다는 자각은 마침내 대보수기일을 절반으로 줄이는 혁신을 안아왔다.

어찌 그들만이라.

높은 기능을 요구하는 회전기대들에 대한 보수를 깐지게 하여 전력생산에 이바지해가는 회전기대작업반원들속에는 염홍식동무도 있다.

10여년전 그는 뜻밖의 일로 로동능력상실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였다.

수십년간 정을 붙여온 일터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는 서운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발전기의 동음을 떠나 순간도 살수 없는 그였기에 슬픈길은 변함없이 이어지게 되였다. 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그를 거듭 만류하였지만 한생을 동력기지의 전초병으로 삶을 빛내여가려는 그의 결심은 드팀이 없었다.

설비보수성과이자 전력증산이라는 자각을 안고 헌신적인 투쟁을 벌려오는 나날 당의 크나큰 믿음도 받아안은 제관직장의 종업원들이다.

제관1작업반의 전승철동무가 6년전 청년절경축행사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였고 두해전에는 회전기대작업반의 김광혁동무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대표로 참가하였다.

오늘도 제관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나라의 동력기지를 지켜섰다는 자각을 안고 전력생산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신 현 규

—전기직장에서— 본사기자 최 충 성 찍음

누가 보건말건 량심의 자욱을 새기며

서두수3호발전소에서

청진시로부터 수십리 떨어진 석막땅에 자리잡은 서두수3호발전소를 찾은 우리의 눈앞에 제일먼저 안겨온것은 해발고가 수백m나 된다는 험준한 산이였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미더운 주인공들이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누가 보건말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생을 빛나게 사는 사람입니다.》

발전소에서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은 운영종합반장 림문수동무였다. 그는 자기 아버지는 이 발전소를 일떠세운 건설자들중의 한사람이였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전소건설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이야기해주군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일찌기 함경북도의 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만강의 지류인 서두수를 막아 그 물을 함경산줄기의 동쪽에 떨구어 수십만kW의 전력을 얻는 큰 발전소를 건설할데 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북방의 이 발전소에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헌신이 깃들어있다고 생각하니 우리의 마음은 저도모르게 뜨거워졌다. 그리고 당의 뜻을 받들어 누가 보지 않는 외진 초소에서 한생을 바쳐가는 이곳 전력생산자들의 고결한 인생관에 머리가 숙어졌다.

그들속에는 30여년을 발전소에서 일해오고있는 보수작업반장 김천식동무도 있었다.

발전소의 소문난 혁신자인 그를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보아주신 3호발전기앞에서 만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의 전력문제때문에 얼마나 마음쓰시였습니까. 한몸이 그대로 타버리여서라도 한W의 전기라도 더 생산하고싶은것이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김천식동무가 하는 말이였다. 이런 고결한 마음을 지닌 그였기에 그는 제대되여 고향에 돌아온 만아들도 발전소에 세웠다고 한다.

자기들이 성실한 땀과 열정을 바치는것만큼 조국의 불빛이 밝아진다는 자각을 안고 하루하루를 혁신과 위훈으로 수놓아가는 전력생산자들이 어찌 이들뿐이랴.

뿌리는 땅에 묻혀 보이지 않아도 거목을 떠받드는것처럼 당이 바라는 초소에서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는 이런 참된 애국자들이 많기에 우리 조국은 나날이 강대해지는것이다.

본사기자 정 영 철

그날의 맹세로 높뛰는 심장

녕원발전소에서

녕원이라고 하면 사람들 누구나 제일먼저 떠올리는것이 바로 녕원발전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혁명을 위하여 심장을 불태우며 하루를 살아도 보람있게 살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혁명가의 고귀한 영예를 지닐수 있습니다.》

주체98(2009)년 4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건설된 녕원발전소를 찾으시여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나라의 전력생산을 늘이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뜻깊은 그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전력증산으로 당을 받들어갈 열의로 심장의 피를 끓이던 발전소로동계급은 그날의 맹세를 지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지난 5월 어느날 책임기사 한영철동무는 2호발전기의 수차안내장치에 이상이 생긴것을 발견하게 되였다. 즉시 일군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발전기를 세운 그는 근무성원들과 지혜와 열정을 합쳐가며 짧은 시간에 수리를 끝냈다. 발전기는 다시 동음을 울리기 시작하였고 측정계기들도 정상수치를 가리켰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부단히 개선하여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는데 자기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더우기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고있는 현실은 한W의 전기라도 더 생산할것을 요구하고있지 않는가.

그들은 수차안내장치를 자체로 개조할것을 결심하였다.

한영철동무는 전력생산지휘로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도 짬짬이 설계도면을 완성하였고 보수작업반장을 비롯한 현장로동자들은 손에서 용접가위를 놓을새없이 전투를 벌려였다.

20일 남짓한 기간의 긴장한 전투가 끝났을 때 발전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발전기의 동음을 지켜낸 기쁨으로 하여 가슴이 후뜻해졌다.

이것은 전력증산을 위해 헌신의 날과 날을 이어가는 그들의 투쟁에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성과속에도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여가려는 불같은 충정이 깃들어있었다.

그 마음과 마음에 떠받들려 발전기의 동음은 오늘도 변함없이 울리고있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일념으로 불타는 전력생산자들의 심장의 박동처럼 순간도 멈춤없이 녕원땅에 메아리치고있다.

김 송 이

지칠줄 모르는 탐구와 헌신으로 당을 받들어가는 참된 애국자

원산시 세길동에 살고있는 려경복동무에 대한 이야기

원산시 세길동에 살고있는 려경복동무는 몇달전까지만 하여도 원산농업종합대학 인쇄공장에서 현장기사로 일해온 오랜 기술자이다.

그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년로보장을 받은 오늘도 공장의 생산정상화와 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스스로 맡아안고 드바쁜 나날을 보내고있다.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50여년이라는 기나긴 나날을 지칠줄 모르는 탐구와 헌신으로 이어왔으며 오늘도 권리앞에 의무를 먼저 놓으며 한생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워가는 그를 사람들은 참된 애국자라고 부르며 존경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참다운 애국자입니다.》

우리는 려경복동무를 그의 한생이 흘러간 공장의 인쇄현장에서 만나게 되였다.

어떻게 인쇄기술자로 한생을 살아왔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그는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려경복동무가 평양기계대학(당시)을 졸업하고 당시의 원산농업대학인쇄소 현장기사로 배치받은것은 수십년전이였다.

세계적인 발명가가 될것을 꿈꾸면 그여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와하였다. 사실 그는 과학연구부문의 연구사가 될것을 열렬히 희망하였었다.

이런 포부를 안고 피타는 정열을 기울이며 지식의 탑을 높이 쌓아가던 어느날 그에게 원산농업대학(당시)의 한 일군이 찾아왔다. 초면의 그 일군은 평양출장길에 자기 대학의 인쇄소설비들이 잘 가동하지 않아 기계대학의 도움을 좀 받자고 들렸다면서 다짜고짜 며칠간만 시간을 내여 도와달라는것이였다.

려경복동무가 졸업학년적으로 실력이 제일 높다는것을 어느새 알고 벌써 대학일군들의 승인까지 다 받아가지고 온것이였다.

사실 졸업론문변론준비로 무척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던 려경복동무였지만 오죽 안타까왔으면 한개 대학의 일군이 낯모를 대학생에게 이런 부탁까지 하라 하는 생각에 선선히 따라나섰다.

얼마후 대학의 인쇄소에 도착한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인쇄소에는 낡은 인쇄설비가 몇대 있었는데 그나마도 제대로 가동하는것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인쇄설비에 대하여 전혀 파악이 없었던 그였지만 두팔을 걷어올리고 기계의 작용원리를 빠른 시간안에 터득하고나서 고장원인을 하나하나 찾기 시작했다. 하여 여러달동안이나 돌리지 못하던 인쇄설비들을 단 2일만에 정상가동시키게 되였다.

그때의 기쁨은 얼마나 컸던가.

대학일군들과 인쇄소로동자들의 기쁨넘친 모습을 대하면서 교과서생산을 위해 애쓰는 그들을 위해 자기도 무엇인가 해놓은것이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은 흐뭇하기만 하였다.

이때였다.

인쇄소로동자들속에서 오가는 이야기가 그의 고막을 때렸다.

《우리도 결정적으로 설비들을 갱신해야지 언제까지 꿰진 바지 깁듯 하겠소.》

《그걸 누가 모르오. 우리한테 그걸 맡아할 기술자가 없는데 어쩌겠소.》

그는 무엇에 쫓기우듯 서둘러 인쇄소를 나섰다. 로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마치 자기를 두고 하는 말같이 느껴져 더이상 그 자리에 서있을수가 없었던것이다.

떠나는 그를 바래우며 대학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욕심같아서는 동무를 아예 여기 데려오고싶지만 과학원을 희망한다니 붙잡지 못하겠구만. 하지만 전문연구기관에 가야만 과학연구사업을 할수 있는건 아니요. 아무쪼록 꼭 성공하길 바라오.》

평양으로 떠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 못하였다.

지나간 대학시절을 눈앞에 그려보는 그의 가슴속에서 세찬 격정의 파도가 물결치기 시작하였다.

주체52(1963)년 9월 30일, 그는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을 보인것으로 하여 대학의 인쇄소에 도착한 그날 대학일군들과 인쇄소로동자들앞에서 수십년 일하는 과정에 그는 많은 과학기술성과를 생산에 도입하여 발전기의 동음이 높이 울리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는 년로보장을 받은 후에도 자주 직장에 나와 새세대 로동자들에게 전력증산으로 우리 당을 받들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뿌리가 되여 순절한 마음을 바쳐온 전세대들의 고귀한 정신과 투쟁기풍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고 그들이 주인구실을 다하도록 하는데 품을 아끼지 않았다.

두해전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에는 매일과 같이 직장에 나와 로동자들과 함께 설비관리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를 해결한 그였다.

년로한 그를 걱정하여 일군들이 건강을 돌보라고 권고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하루라도 발전소구내를 걷지 않으면 어쩐지 마음이 허전해서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저 뛰니뛰니해도 일이 보약입니다.》

한생을 당이 맡겨준 일터를 지켜 변함없는 한모습으로 살아온 그에게 있어서 전력생산 못지 않게 크고 중요한 임무는 딸이 자기의 뒤를 잇게 하는것이였다. 하기에 그는 옥춘영동무가 전문학교(당시)를 졸업하자 자기가 일하던 직장에 서게 하였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배움의 나래를 한껏 펼친 후 실험공을 거쳐 담당기사가 된 옥춘영동무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북창로동계급의 영예를 빛내이는 길에 전력생산자의 값높은 삶도 행복도 있다고.

옥춘영동무는 그 당부를 가슴깊이 새기고 아버지가 섰던 초소를 억세게 지켜가고있다.

자기들의 일터를 조국의 부강번영과 이어진 영예로운 초소로 여기고 대동력기지의 숨결을 지켜 헌신의 땀방울을 바쳐가는 화학1직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지난날 그러하였던것처럼 오늘도 매일도 전력증산으로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들려는것은 화학1직장만이 아닌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가슴속에 굳건히 자리잡은 철석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본사기자 김 진 욱

입사증을 받아드는 순간 그는 공장일군들의 뜨거운 인정미에 눈앞이 흐려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런데 며칠후 새 집을 받게 되였다고 그리도 기뻐하던 그가 별안간 입사증을 다시 들고 찾아와 자기는 원래집이 좋으니 그대로 살게 해달라는것이 아닌가. 의아해하는 공장일군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새 집에 가보니 출근거리가 멀어서 안되겠습니다.》

이런 대답과 함께 입사증을 놓고 떨어져가는 그의 뒤모습을 이윽토록 바라보는 일군들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것이 고패쳤다.

사실 공장은 시내중심에서 떨어져있었기때문에 시내로 나가려면 통근차를 리용하여야만 하였다. 그런데 생산현장에서 수시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해주고서야 공장정문을 나서군 하는 그가 통근차시간에 맞춰 퇴근을 하겠다고 할리가 없는것이였다.

공장일군들은 즉시에 협의회를 열고 온 공장이 떨쳐나 그가 살던 집의 칸수를 늘여주는 조치를 취해주었다.

이처럼 오직 공장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바친 려경복동무였기에 그처럼 엄혹했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인쇄공정의 콤퓨터화를 결심할수 있었으며 정판인쇄기를 공장자체의 힘으로 제작하는 놀라운 성과도 거둘수 있었다.

그가 이룩한 수많은 과학기술성과로는 얼마든지 학위론문을 쓸수 있었으나 려경복동무는 그것을 서두르지 않았다. 어머니조국의 부강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 그만이라는것이 그의 신조였던것이다.

그가 공장에서 50여년간 현장기사로 있으면서 설계제작한 인쇄설비만 해도 무려 60여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니 결국 한해에 한종이 넘는 인쇄설비를 자체로 제작한셈이다.

과연 무슨 힘으로 이런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겠는가.

그도 가정을 가진 정범한 인간이였고 그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었다. 지쳐 쓰러질 때마다 한생을 나라의 교육사업을 떠받드는 뿌리로 살리라던 그날의 그 맹세를 변함없이 지키게 한 신비로운 힘의 원천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려경복동무가 이제는 반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한시도 품속에서 떼여놓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고있는 금혹만년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사랑의 금혹만년필!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단순히 필기도구이기전에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이였고 믿음이였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흘러도 변치 않는 만년필의 금혹처럼 보람의 일념으로 끓어번지는 그의 심장은 언제나 로쇠를 몰랐다.

그에게는 하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꼭 같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모습을 면발치에서나마 뵙고싶은것이였다. 그런데 그처럼 바라고바라던 소원이 꿈같이 이루어질줄이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자기의 한생을 깡그리 바쳐 조국의 부강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고있는 그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불러주시여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최상최대의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였다.

이런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몇해전 인공잔디의 품질심는기계를 자체의 힘으로 설계제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여 강원도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크나큰 기쁨을 드릴수 있었다.

* *

우리 공화국의 70년력사가 그처럼 긍지스러운것은 바로 오직 한마음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온 이런 참된 애국자들이 많기때문이다.

려경복동무의 한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있다.

진정으로 조국을 위해 자기를 바칠 때 그 생은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영원히 빛나는것이며 바로 여기에 인생의 참다운 행복도 영광도 있다는것을.

유 광 진

반제자주력량의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해나가시는 길에서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압살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이로 하여 국제무대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세계의 진보적력량은 지배주의세력과 굴함없이 맞서싸우고있으며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적전진은 반제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도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고 우리 당의 자주적대외정책을 일관하게 관철하시였으며 탁월한 외교지략과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세계사회주의운동의 강화발전과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전투적기치를 안겨주시고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과 세계평화위업실현에 거대한 기여를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반제자주력량의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진보적력량이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보조를 맞추고 련대성을 강화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주체76(1987)년 9월 평양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보장을 위한 국제회의가 열리였다. 수많은 나라와 국제기구 대표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회의가 세계반제자주력량의 단결된 힘을 과시할수 있는 뜻깊은 계기로 되도록 회의조직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세심히 지도해주시였으며 회의가 개막된 다음날인 주체76(1987)년 9월 25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가자》를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현대제국주의의 반동적본질과 멸망의 불가피성,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론증하시고 세계 모든 반제자주력량이 단결하여 철탁된 제국주의자들과 투쟁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리고 세계반제자주력량의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원칙과 방도에 대해서도 투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 모든 진보적나라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이 반제적립장을 견결히 고수하고 민족리기주의를 반대하며 호상 존중하고 협조하는 동지적관계에 기초하여 단결해야 한다고,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분렬, 리간책동을 짓부시고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세계 수많은 나라 각계인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안겨준 새로운 투쟁의 무기로,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불멸의 기치로 된다고 격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 혁명적당들이 반제자주의 길로 나아가도록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인류자주위업을 말살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한층더 강화되였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예리하게 꿰뚫어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1(1992)년 10월 10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혁명적당들의 국제적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적당들의 국제적단결과 련대성은 사회주의리념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적당들사이의 국제적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는 목적이 서로 힘을 합쳐 사회주의공동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는데 있다고, 사회주의리념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하는것은 혁명적당들의 마땅한 의무이라고 하시였다. 혁명적당들의 국제적단결과 련대성은 자주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자주성과 평등에 기초하여 동지적관계를 맺을 때 공고한 국제적단결을 이룩할수 있다는데 대하여서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이로써 지난 기간의 비정상적이고 편향적인 현상들을 극복하고 혁명적당들의 단결과 련대성을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진보적인 나라들과 인민들사이에 반제련대성을 강화하며 친선의 뉴대를 더욱 튼튼히 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 인민들이 오랜 기간에 걸친 간고한 투쟁끝에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였을 때였다. 많은 나라들은 이 나라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문제를 놓고 이러저러한 구실을 대면서 립장을 명백히 밝히지 않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해 편견을 두거나 그 누구의 눈치를 보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모든 국제문제들은 어디까지나 자주성과 단결의 원칙에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 나라가 남먼저 그 나라를 승인하는 공식립장을 표명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지니시고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발전도상나라들을 성심성의로 도와주도록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평화와 친선, 단결에 이바지할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 지지해주심으로써 반제자주, 단결과 련대성의 목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도록 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반제자주위업수행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으신 절세의 위인이시다.

하기에 세계 진보적인류는 오늘도 그이를 끝없이 경모하며 심장으로 따르는것이다.

본사기자

민족문화유산을 길이 빛내여주시려

이 땅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조약돌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며 한평생 애국으로 심장을 불태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은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들에도 어리여있다.

다시 태여난 옛춤

주체59(1970)년 3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대극장에서 3.8국제부녀절 60돐기념 음악무용종합공연 시연회를 보아주시였다. 공연이 끝난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연종목에 《사당춤》은 왜 빠졌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그 춤은 절간에서 나온 천박한 춤이기때문에 넣지 않았다고 그 사연을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웃으시더니 봉건시기 우리 나라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뜨락을 무대로 삼고 노래와 춤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다,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사당》이라고 불렀다, 《사당춤》에는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춤가락과 민족적인 흥취가 적지 않게 반영되여있다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면구스러워 머리를 들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책감에 몸들 바를 몰라하는 일군들과 창작가들의 마음을 북돋혀주시며 《사당춤》이라고 부르는것이 쉽게 리해되지 않는다면 《3인무》라고 하여도 됩니다, 이번 공연종목에 무용 《3인무》를 넣고 이미 준비한 배우들을 출연시켜야 하겠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민족의 슬기와 재능, 풍부하고 아름다운 생활감정을 반영한 문화유산들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훌륭히 되살림으로써 인민들의 애국주의교양에 이바지하게 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이렇게 되여 세월의 락엽속에 묻혀 사라져버릴번 하였던 옛 《사당춤》은 《3인무》로 다시 태여나게 되였다.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문화유산들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사업과 함께 유적, 유물들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나 화첩, 책들을 만들어 슬기로운 우리 민족의 지혜와 재능을 후세에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를 대대손손 빛내이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뜻에 의하여 고구려벽화무덤들이 기록영화에 담겨질때의 일이다. 당시 해당 부문의 일군들은 영화촬영에 많은 비용이 드는것으로 하여 방도를 찾지 못하고 주저하고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선조들이 남긴 유물들을 잘 보존하고 후대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일인데 비용이 좀 많이 들면 뭐라는가고, 고분들이 산속깊이에 있어서 전선대를 많이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 필요한만큼 다 세우자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기록영화를 찍도록 하자고 하시면서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각별한 관심속에 전국각지에 분포되여있는 고구려벽화무덤들을 영화화면에 옮기기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되였다.

민족문화유산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며 민족의 만년재보로 빛을 뿌리게 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뜻과 의지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고구려시기의 문화유산들이 어려련의 기록영화들에 옮겨져 후세에 길이 전해지게 되였다.

본사기자 리 성 호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얼마전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인신매매국》으로 걸고드는 대통령결정문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지난 2000년에 이른바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이라는것을 조작한 이후 해마다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딱지를 붙여 제재를 가하고있다. 이번에 법려놓은 놀음도 그 일환이다.

미국이 대통령결정문이라는것을 통해 우리를 리무니없이 헐뜯으며 제재압박책동에 광분하고있는것은 존엄높은 우리 국가에 대한 응남 못할 정치적도발이며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정신에 배치되는 극악한 적대행위이다.

최근 유엔총회에서 추종세력들과 함께 너절한 모략날조설을 내돌리며 《북조선인권결의안》이라는것을 꾸며낸 미국은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존엄높은 우리 국가에 《인신매매》감투까지 씌우려고 발광하고있다. 이 파렴치한 행위는 우리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미국이 떠드는 그 무슨 《인신매매》협의라는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날조품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철저히 구현되여 인민중시, 인민사랑이 제도의 근간으로 되고 혁명적동지애와 미덕이 사회의 기풍으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인신매매란 상상조차 할수 없다. 인권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가장 훌륭하게,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주고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공화국이다. 미국이 제아무리 시비질해도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여 참다운 인권을 보장받는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을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동토대는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수백년전부터 흑인사냥, 노예무역으로 살찌웠으며 오늘도 온갖 사회악으로 악명을 떨치고있는 인권범죄국이다. 인간증오사상과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고 극심한 인종멸시, 녀성차별, 각종 폭력범죄, 인신매매행위가 성행하고있어 인민들이 항시적인 불안과 위험속에서 살아가고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내의 참혹한 인권실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마치 《국제인권재판관》이라도 된듯이 다른 나라들의 인권이 어쩌니저쩌니 하며 나발질하고 나중에는 우리까지 헐뜯으며 반공화국제재압박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이다.

우리를 《인신매매국》으로 매도한 미국의 이번 도발행위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을 어떻게 하나 흐려놓고 제재압박분위기를 더욱 고취하여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내외여론들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미국은 저들의 제재압박책동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있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극도의 무지와 편견, 뿌리깊은 적대시정책의 산물인 《인권》모략소동에 계속 매여달릴수록 저들의 반인륜적인 흉악한 정체만을 더욱 드러내보이게 될뿐이다.

앞에서는 두 나라사이의 적대와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화약하고 돌아서서는 대화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으며 제재압박책동에 광분하는 미국의 이중적처사가 내외의 비난과 규탄을 자아내는것은 당연한것이다.

미국은 다 제어져나간 반공화국《인권》모략의 북통을 아무리 두드려대야 망신밖에 당할것이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대결과 적대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허 영 민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 년차총회 진행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 년차총회가 11월 30일 쏘피아에서 진행되였다.

총회에서는 지난 기간 협회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였으며 앞으로의 사업계획이 토의되였다.

또한 협회지도부성원들에 대한 선거가 있었다.

협회위원장으로 민초 민제브가, 부위원장들로 밉초 규로브, 륜드밀 꼬스따디노브, 뽈라멘 잠부로브가 선출되였다.

로씨야대통령 미국의 위협 일축

로씨야대통령 블라지미르 뿌찐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로씨야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폐조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경우 60일이내에 조약에서 탈퇴할것이라는 미국의 위협을 일축하였다.

그는 미국이 로씨야가 조약을 위반하고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와 관련한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하였다고 까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조약으로부터의 탈퇴를 선포하기 전에 미국회가 이미 해당 미싸일체작을 위한 연구 및 시험설계에 자금을 할당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로씨야는 조약이 파기되는것을 반대하지만 미국이 탈퇴하는 경우 해당한 형식으로 대응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란대통령 미국의 제재책동을 규탄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가 8일 테헤란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책동을 규탄하였다.

미국이 이란국민을 겨냥하여 포악하고 불법적인 제재를 가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이를 경제적테로행위로 락인단죄하였다.

경제적테로는 해당 나라의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며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와 무역을 진행하고 투자하는것을 막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자기 나라에 대한 제재재개, 무역봉쇄자들에 대한 압력이 바로 그 실례이라고 강조하였다.

프랑스와 네데를란드에서 항의시위

프랑스의 각지에서 8일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항의시위들이 벌어졌다.

시위들에는 3만 1 0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자들은 거리를 따라 행진하면서 부유층의 리익만 챙겨주는 당국의 그릇된 경제정책으로 생계비가 뛰어오르고 자기들의 생활처지가 더욱 어려워지고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세금을 낮추고 임금을 올릴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같은 날 네데를란드의 로테르담, 마스트리흐트, 에인드호벤 등 전국의 주요도시들에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당국의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들이 있었다 한다.

특별경제지대 창설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시교외에 특별경제지대가 창설되여 6일 경영활동을 시작하였다.

특별경제지대를 내온 목적은 록색기술이 도입된 제조업중심지를 구축함으로써 현재의 낡은 경제하부구조를 개선하는데 있다.

주요도로들과 련결되여있고 가까운 곳에 2개의 항구가 있어 특별경제지대의 발전잠재력이 크다고 한다.

또한 약 4 500개의 일자리가 새로 마련되게 되였다.

집단식중독사건 발생

일본의 마쯔에시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최근 집단적인 식중독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11월말부터 배아픔과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련이어 나타났으며 2일현재 그 수는 55명에 달하였다.

원인은 교내에서 오염된 음식을 판매한데 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의 반인민적정체를 폭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5일 《자유한국당에는 유치원 원장들밖에 없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반인민적정체를 폭로하였다.

사설은 사립유치원들에서의 부정부패를 감독통제하기 위한 유치원판련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재산침해론을 반복하며 법안통과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의 행위를 보면 과연 그들이 유치원들에서 발생한 부정부패사태를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를 알수 있다고 사설은 비난하였다.

사설은 《자유한국당》이 모든 문제를 사유재산권으로만 보고있다고 까밝혔다.

지금 국민들속에서 《한국당은 유치원총련합회 대변인이라도 되나.》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입만 열면 국민을 말하지만 그들이 대변하는 국민이 과연 누구인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고 사설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수리아에서 철도복구사업 추진

수리아의 사나통신이 7일 수도 다마스끄시와 북부의 알레뽀시를 련결하는 철도복구공사가 추진되고있다고 전하였다.

철도복구는 북부와 남부지역들에 있는 발전소들에 연료를, 다마스끄, 홈스, 하마, 알레뽀도들에 있는 랑곡저장소들에 알곡을 운반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한편 이 도들의 재건사업에 필요한 석재보장을 위해 중부지역의 채석장에 보조철길이 건설되고있다.

공사는 다음해 중순에 완공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폭탄공격위협사건으로 소동

미국에서 6일 CNN방송사 뉴욕지부에 대한 폭탄공격위협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날 뉴욕시의 맨하탄에 있는 방송사지부에 5개의 폭탄이 설치되였다는 협박전화가 걸려와 건물안에 있던 숱한 사람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이 출동하여 도로와 건늘길까지 차단하고 건물을 수색하였지만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10월에도 이곳에서 그와 같은 위협사건이 일어나 물의가 빚어졌다.

【조선중앙통신】

녀성폭력행위가 날로 우심해지는 자본주의사회

가정은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사는 사회의 세포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정이라는 울타리안에서 단란한 생활을 누릴것을 바란다.

하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있다. 주요요인은 날로 우심해지는 가정폭력에 있다. 녀성들이 큰 피해자로 되고있다.

유엔약물범죄사무소가 세계녀성폭행금지의 날을 맞으며 발표한 가정폭력행위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에 세계 각지에서 살해된 녀성들의 수는 약 8만 7 000명이며 그중 58%는 가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죽었다. 이것은 매일 평균 130여명의 녀성이 남편을 비롯한 가족성원들에 의해 살해된것으로 된다.

그리스에서는 올해초부터 11월말까지의 기간에 신고된 전국적인 가정폭력행위건수가 약 5 090건에 달하였다.

영국의 런던에서는 가정폭력행위와 관련한 신고가 매일 평균 400여건에 이르고있다.

또한 도이췰란드에서는 지난해에 공식 신고된 가정폭력범죄행위가 13만 8 890여건에 달하였다.

가정을 알뜰살뜰 돌보며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할 녀성들이 악육강식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처럼 폭력의 대상이 되고있다. 남편이 폭군이 되고 자식이 악한이 되여 안해, 어머니를 마구 구타하고 살해하는것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보통일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녀성폭력 및 학대행위는 일터와 거리를 비롯한 공공장소들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있다.

이딸리아에서는 최근시기 녀성들에 대한 폭행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있다고 한다.

지난해 오스트랄리아에서 2만 550여건의 성폭력범죄가 감행되였다. 미국에서도 녀성의 60%가 일터에서 성희롱을 당하고있다고 한다.

지난 5월 일본에서 녀성기자에 대한 제무성 이전 관리의 성희롱추문사건이 드러난것을 계기로 신문, 잡지, 방송 등 출판보도부문의 녀성근로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되였다. 그에 의하면 응답자의 대다수가 취재활동과정에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울분을 토로하였다.

녀성폭력 및 학대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이 국제적범위에서 고조되고있다. 세계녀성폭행금지의 날이 제정된것이 그 일환이다.

올해 세계녀성폭행금지의 날을 맞으며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녀성들의 권리를 보장할것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들이 일제히 벌어졌다.

11월 25일 뒤르끼예의 이스딴불시에서 수천명의 녀성들이 집회를 열고 녀성들을 천시하고 학대하는것이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는데 대해 항의하여나섰다.

에스빠냐의 수도 마드리드에서는 수만명의 군중이 녀성들에 대한 각종 폭력을 반대하는 시위행진을 벌렸다. 녀성폭력행위로 목숨을 잃은 녀성들을 추모하는 의식도 있었다.

프랑스와 그리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녀성들에 대한 폭력을 근절할것을 호소하는 대규모항의시위들이 있었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는가 하는것은 해당 나라의 문명정도를 규정짓는 척도이기도 하다.

서방나라들에서 성행하는 녀성폭력행위는 자본주의가 썩고 병든 사회이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녀성들은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오랜 기간 투쟁을 벌려왔다. 하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녀성들이 폭력을 당하는 등 온갖 범죄의 희생물로 되는 불행한 처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녀성인권문제가 절대로 해결될수 없다.

박 진 향

일본의 과거 문화재략탈범죄를 다시금 고발한다

지난날 일본은 조선의 이름난 도자기를 비롯한 문화유물들을 무차별적으로 략탈하여갔다.

우리는 일본이 과거에 우리 나라에서 감행한 문화재략탈범죄를 다시금 까밝히기 위해 전문가인 위국현동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물음:현재 일본에 우리 나라 문화재들이 얼마나 소장되여있는가.

대답:지금 일본의 전국각지에는 고려자기만 하여도 3만-4만점이나 있다.

일본인들자체가 밝힌데 의하면 우리 나라의 문화유물들이 도꾜국립박물관에 4만여점, 네즈미술관에 수천점 소장되여있다. 뿐만아니라 크고작은 박물관들과 대학, 절간들에 도자기, 금속공예품, 자개박이공예품, 불상, 그림, 도서, 활자 등 우리 나라의 다종다양한 문화유물이 전시 또는 보관되여있고 개인들도 수많이 가지고있다. 이것을 다 합치면 수십만점에 달한다.

물음:그 모든 문화재들은 어떻게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였는가.

대답:임진조국전쟁시기에 일본침략자들은 문화재들을 대대적으로 략탈하여갔다. 그래서 임진조국전쟁을 《도자기전쟁》이라고도 하고있다. 그때 일본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의 가치있는 도자기들을 략탈하였을뿐아니라 수많은 도자기기술자들과 장공인들도 랍치하여갔다.

20세기 전반기에 일본은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값진 문화재들을 닥치는대로 략탈하여갔다.

물음:임진왜란때 일본이 도자기에 그토록 관심이 컸던 리유는 무엇인가.

대답:남들보다 뒤늦게 문명의 길에 들어선 일본에서는 당시 차를 즐겨마시는것이 풍조로 되였다. 그때 일본인들은 조선사람들이 일상시에 흔히 쓰는 밥그릇과 같은 정범한 자기들을 가져다가 차그릇으로 사용하였다. 우리 나라 도자기에 대한 일본인들의 욕망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것은 당시 고려말기의 차종지(공기) 한개가 쌀 1만석에 해당한 비싼 값으로 거래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잘 알수 있다.

물음:일본은 자체로 자기를 만들지 못하였는가.

대답:당시 일본의 큰 도시들에 도자기급는 기술집단이라는것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자기들은 매우 보잘것없는것들이였다. 좋은 도자기를 가지는것은 일본의 《세기적인 숙망》이였다.

물음:17세기초 일본에서 《흰 사쯔마》라는 도자기가 출현하여 최고급자기로 인기가 대단하지 않았는가.

대답:그것이 바로 임진왜란때에 끌려간 박평의라는 도자기기술자가 만들어낸것이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일본땅으로 끌려간 도자기기술자들은 낯설은 산야를 헤매이며 도자기흙을 찾아내고 원료와 유약을 만들어 일본인들을 깜짝 놀래우는 도자기들을 만들어내였다. 도자기에 대하여 시술한 일본도서들에는 당시 일본이 이름난 자기라고 자랑한것들은 다 조선인도자기기술자들이 일본의 칸 지방에서 만든 도자기이며 그것들은 일본도자기의 조상으로 되였다고 밝혀져있다.

오늘도 일본의 이름있는 도자기기술자들의 족보를 따져보면 모두가 우리 나라 도자기기술자들의 후손들이다.

물음:《을사5조약》남조이후 우리 나라의 문화유물들에 대한 일본의 략탈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감행되였는가.

대답:략탈행위에는 관권과 군권이 총발동되였다. 무력을 동원하여 전국각지의 왕릉들을 도굴하였으며 귀중한 유물들을 일본으로 빼돌렸다. 개성에 있는 경효왕릉(공민왕릉)에서만도 탈구지 10여대분의 유물들을 털어갔다.

조선통감부의 첫 통감이였던 이또 히로부미는 창덕궁, 덕수궁, 경복궁 등에 보존되여 대대로 내려오던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수많은 도자기들을 빼내여 일본왕과 왕족, 귀족들에게 섬겨바칠뿐아니라 무하들과 공모하여 일본의 박물관이나 골동품장사군들에게 비싼 값으로 팔아 폭리를 보았다. 두번째 통감이였던자는 략탈하는데서 물의가 일어나는것은 남몰래 가져가기때문이다, 공공연하게 선물하는것으로 한다면 아무 지장이 없지 않은가고 하면서 우리 나라의 문화유물들에 대한 략탈을 적극 장려하였다.

물음:일본이 우리 나라에 대한 총독통치를 실시할 때에 문화재략탈행위가 더 악랄하게 감행되지 않았는가.

대답:일제는 1916년에 조선고적조사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연구회와 법령, 규정 등을 조작하고 유적조사로부터 발굴처리에 이르기까지 일체 조선총독부와 일본인들만이 관할하게 하였다. 그리고 조선사람들이 유적을 발굴하는것을 금지하였다.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찌는 경복궁의 한 건물을 털어서 자기 고향으로 날라다가 그대로 다시 짓고는 《조선관》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우리 나라의 도자기들과 수많은 불상, 금속공예품, 장신구들을 전시하였다. 조선총독부의 관리들과 조사위원, 고고학자, 골동수집가 등의 각종 탈을 쓴 일본강도배들은 헤아릴수없이 많은 가치있는 문화유물들을 도굴략탈하여 일본으로 빼돌렸을뿐아니라 《연구》, 《진렬》의 명분을 걸고 일부만을 형식상 비치하였다가 나중에는 그마저도 일본으로 실어갔다. 고고학자의 탈을 쓰고 기어들었던 가루베라는 자는 백제시기 중류급이상의 무덤들을 매해 수백기씩이나 도굴하였다. 1963년에 이자는 일본기자와의 회견에서 《백제고분 2 000기를 도굴하였으며 그것을 장사군에게 평가시켜보았더니 3억 수천만뿌이라고 하였다.》고 실토하였다.

물음:문화재략탈행위에 대한 일본정객들의 립장은 어떠한가.

대답:일본정객들은 조상들의 략탈행위를 《가장 훌륭한 문화사업》이였다고 찬양하며 추어올리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략탈한 문화재들을 저들의 《국보》로, 《중요문화재》로, 《중요미술품》으로 등록해놓고 선전하면서 조선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전통을 란도질하고있으며 세계를 우롱하고있다.

일본의 한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본국보라고 세계에 자랑하고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미를 찬양하고있는 작품의 거의 모두가 대체 누구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것인가?

그것은 조선민족에 의하여 만들어진것이 아닌가.

이것은 력사가들도 립증하는 의심할여지조차 없는 사실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당히 말해서 조선의 국보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된다.》

…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증오와 격분으로 높뛰는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다.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저지른데 대해 사죄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조상들의 날강도행위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정당화하는 일본이야말로 우리의 천년숙적이다.

손 소 연

ㄱ-1811958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및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